

석사학위논문

초기 개혁교회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국가관연구

- 벨직 신앙고백서,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 학 과

정 태 진

지도교수 황 재 범

2005년 12월

초기 개혁교회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국가관연구

- 벨직 신앙고백서,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황재범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 학 과

정 태 진

정태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허도화

부심 오우성

부심 황재범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5년 12월

감사의 말씀

본 논문을 작성하고 제출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올해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만10년째이고 전임사역을 시작한지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큰 선물을 받은 듯 하여 더욱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감사할 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학문의 스승이신 황재범 지도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논문을 정성껏 살펴주시고 고비 때 마다 매듭을 하나씩 풀 수 있도록 지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장으로서 논문의 기본요소들을 잘 점검해 주신 허도화 교수님, 논문의 완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언하신 오우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뒷바라지 해준 아내 윤혜경과 아빠의 자랑거리인 사랑하는 아들 하현이와 아빠를 늘 즐겁게 해주는 예쁜 딸 하은이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중에 계시면서도 늘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신 부모님, 정준화 장로님과 이기선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로 힘든 가운데서도 학업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배려해 주신 이선곤 담임목사님과 사모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목회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로 사랑을 베풀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 차

1. 서 론	1
1.1 연구목적	1
1.2 연구범위와 방법	3
1.3 연구사	4
2. 국가와 국민의 정치적 위치와 성격	8
2.1 국민에 대한 신적 기관으로서의 존엄한 국가의 위치	8
2.1.1 국가권력의 신적(神的) 기원(起源)	9
2.1.2 인적(人的), 영적(靈的) 책임성을 지닌 국가	11
2.1.2.1 인적(人的) 사명	13
2.1.2.1.1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증진	13
2.1.2.1.2 신적권위로서의 전쟁수행권	16
2.1.2.1 영적(靈的) 사명	19
2.1.2.2.1 복음전파의 사명	21
2.1.2.2.2 그릇된 예배의 개혁	23
2.1.3 신적(神的) 대리자로서의 통치자	25
2.1.3.1 통치자의 통치원리	26
2.1.3.2 통치자의 신적 성격	26
2.1.4 무력의 포괄적 사용에 대한 신적 제가(制可)	28

2.1.4.1 무력사용의 신적 권위	28
2.1.4.2 무력사용의 목적	29
2.2 국가에 대한 복종자로서의 국민의 위치	31
2.2.1 복종의 근거	32
2.2.1.1 복종의 근거로서의 하나님의 제정	33
2.2.1.2 양심을 위한 복종	34
2.2.2 복종의 방식	37
2.2.2.1 위정자에 대한 경의와 존경	37
2.2.2.2 납세의 의무	38
2.2.2.3 기도를 통한 봉사의 삶	40
2.2.3 반국가적(反國家的) 집단에 대한 교회의 이해	41
2.2.3.1 가톨릭교회의 전체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거부	41
2.2.3.1.1 가톨릭교회의 국가관과 교권의 우월성	42
2.2.3.1.2 가톨릭교회의 저항권 이해	44
2.2.3.2 재세례파(Anabaptist)의 무정부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정죄	45
2.2.3.2.1 재세례파의 국가의 기원과 정교분리의 원칙	47
2.2.3.2.2 재세례파의 저항권 이해와 반(反)사회적 요소	49
3. 국가권력과 통치자에 대한 국민의 저항관계	52
3.1 신앙고백서에 나타나는 소극적 저항권	52
3.1.1 저항의 조건으로서의 “하나님의 계명위반”	54

3.1.2 불법적 저항에 대한 정죄	55
3.2 종교개혁자들의 소극적 저항성	57
3.3 소극적 저항의 원인으로서는 정치적 영향	59
3.3.1 개혁자들의 보수적 정치성	61
3.3.1.1 루터 (Martin Luther, 1483~1546)	61
3.3.1.2 칼빈 (John Calvin, 1509~1564)	63
3.3.2 신앙고백서작성의 정치성	65
3.3.3 이단정죄의 정치성	68
4. 국가권력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 저항의 정당성	71
4.1 교회의 적극적 저항의 정당성	71
4.2 적극적 저항의 목적과 방향	74
4.3 적극적 저항의 예(例)	75
4.3.1 성경에 나타난 저항	76
4.3.2 근대교회사에 나타난 저항	77
5. 결 론	80
5.1 요약	80
5.2 결론	82
참고문헌	83
영문초록	88
국문초록	90

1. 서론

1.1 연구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개혁신교회 전통의 원류(原流)라고 할 수 있는 초기개혁신교회의 신앙고백서에 나타나는 국가관과 국가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종교개혁이라는 큰 변혁의 물결 속에 대두되었던 다양한 국가관들 특히 전통적 가톨릭교회의 지배적인 국가관과 다른 차별화된 개혁신교회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런 연구의 결과는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통치행위나 정책들에 대하여 다른 이해와 행동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형태가 있어왔다.¹⁾ 첫째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 둘째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 셋째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배치되고 서로 충돌하며 한쪽이 다른 한쪽을 파괴하려는 형태이다. 그리고 넷째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 각기 다른 중심을 두고 양존하는 형태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큰 전환점이었다. 종교개혁을 통해 개혁신교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교황 지상 주의적 획일성을 무너뜨리고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신앙고백교회가 되게 하는데 공헌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은 새로운 국가관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종교개혁의 결과 개혁신교회는 국가 교회적이거나 혹은 계층적으로 각기 분리된 형태로 발전되었다.²⁾ 이런 양상은 개혁신교회가 출현하던 당시 다양한 국가관들로 혼합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즉 중세시대를 지배하던 가톨릭교회의 국가관으로 교회가 국가를 전적으로 지배하는 구조, 칼빈이나 루터가

1) 황성수, **교회와 국가** (서울: 신광출판사, 1972), 284.

2) 강근환,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의,”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7-15.

주장한 이론으로 교회와 국가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 각자의 고유성과 역할이 강조되는 구조, 그리고 교회와 국가가 서로 배치되고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구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혁신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였던가? 혹은 교회의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는 종교개혁의 변혁기의 큰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뿐 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개혁신교회가 국가의 통치행위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국가의 통치와 통치자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교회는 해답을 던져주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한국개혁신교회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정치적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피해왔다. 대신에 인도주의적 사업, 의료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에는 언제나 참여했으나 정치활동은 피해왔다. 이런 현상은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한다.”, “종교와 정치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까지 이르게 했다.³⁾ 뿐 만 아니라 한국의 헌법은⁴⁾ 엄격하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 한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역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교회사에서 한국교회는 1907년에 미국선교사들에 의해 소개된 12신조를 받아들였다. 이 12신조는 교회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개혁신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지침을 제시하였어야 했다.⁵⁾

그러나 이 신조는 웨스트민스트신앙고백서의 요약정도의 신조로 치부되었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12신조 내에는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국가나 통치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리고 개혁신교회의 값진 유산을

3) 존 스타트,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27.

4) 대한민국헌법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5) 김영재, **교회와 신앙고백** (서울: 성광문화사, 1989), 210.

전수받았다고 자부하는 한국개혁신교회가 아직 종교개혁기에 개혁신교회가 공인하고 고백하던 국가관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개혁신교회의 전통의 원류(原流)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신교회에서 작성되고 공인되었던 대표적인 신앙고백서에 나타나는 국가관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현대기독교신자들에게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책임 있는 삶에로의 결단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종교 개혁기에 작성되어 중요한 의의를 지닌 대표적인 3개의 신앙고백서 즉 벨직신앙고백서⁶⁾, 제2스위스신앙고백서⁷⁾, 그리고 신앙고백서 중 가장 완벽한 신앙고백서로 인정받고⁸⁾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⁹⁾를 중심으로 국가관을 살펴보고자한다. 특별히 이들 고백서들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관과 관련된 항목인 벨직신앙고백서의 36장 “통치자에 관하여”, 제2스위스신앙고백서의 30장 “행정 관료에 관하여”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23장 “국가의 공직자에 관하여”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본 논문을 구성하고자한다. 제1장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및 범위, 그리고 지금까지 본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되어진 연구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제2장에서 이들 고

6) 1561년 가이도 드 부레스가 개혁신교회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드리안 드 사라비아, 모데투스, 왕켄의 도움으로 프랑스어로 작성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외하고는 칼빈주의적 교리체계를 가장 잘 진술해 놓고 있다.

7) 쥘리히의 종교개혁자 쓰빙글리의 후계자인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4)가 1565년에 작성하였는데 대륙의 개혁 교회 신조들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외하고는 가장 널리 인정을 받아 큰 권위를 부여 받았다.

8) 허순길, “개혁신앙고백교회로서의 개혁신교회와 한국장로교회,” **신학지남**, 12월호 (서울: 신학지남사, 2001), 20.

9) 1643년 7월1일부터 1648년 2월28일까지 영국의 장기의회가 영국 웨스트민스터에 소집한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유명한 전국적 회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유래한 모든 개혁과장로교회에 공통된 교리표준이며 기본신조이다.

백서들이 표현하고 있는 국가와 국민의 정치적 위치와 성격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 중심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국민에 대한 신적 기관으로서의 존엄한 국가의 위치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원칙적 복종의무에 관한 요소들을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신앙고백서에 나타나는 국가권력과 통치자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신앙고백서에 나타나는 저항권의 소극성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저항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살펴면서 교회의 국가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1.3 연구사

지금까지의 국가관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되어졌다. 국가관에 대한 연구 분야는 역사적 고찰, 개혁자들의 사상중심, 현대 신학자들의 국가사상이나 정치사상연구, 현대교회의 사회참여의 문제, 한국교회정치관, 세속권력에 관한 성구연구(로마서13장)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종교개혁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국가관에 대한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다. 단지 16세기 종교개혁을 배경으로 하는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 즉 칼빈, 루터, 쾰링클리등 인물중심의 사상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인 박의경은 “칼뱅의 정치사상”을 사회적 관점에서 연구한 바가 있다. 그리고 칼빈의 국가관에 대하여 송규섭이 “칼빈의 국가관”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한 바 있고, 김정규 역시 “칼빈의 국가관”이라는 제목으로 연구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칼빈의 정치사상을 논하였는데 교회와 세속권력이 비록 분리되었으나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주권하에 하나의 지향점을 위해 세워진 기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루터에 관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 “루터의 국가관이 갖는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조영민이 발표하였고 국가적, 사회적 갈등의 대표적인 사건인 독일의 농민전쟁을 배경으로 “16세기 농민전쟁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미친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병옥이 루터의 보수적인 정치관과 저항권을 논한 적이 있다. 그리고 “루터의 역사이해와 두 왕국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양한주가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이들은 루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루터의 대사회적, 정치적 영향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독일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기초로 루터의 사상적 발전의 과정을 논하였는데 루터의 국가관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관계를 원칙으로 하면서 각각에게 주어진 존재목적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사상 뿐 만 아니라 당시 무시할 수 없는 기독교 분파집단이었던 재세레파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즉 “16세기 급진종교개혁에 나타난 Thomas Muntzer의 신학과 저항정신”이 발표되었다. 여기서 이단화는 토마스 뮌처의 사상적 배경과 루터와 재세레파의 관계와 영향, 그리고 독일의 농민전쟁과의 관련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의 국가관은 개인적 사상에만 초점이 맞추어 연구된 것은 아니다. 통합적인 연구도 있어왔다. 즉 김기남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선상에서 개혁자들의 사상을 연구하였다. 그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관의 출발점을 성서에서 시작하여 중세, 어거스틴, 종교개혁기, 현대 신학자 즉 칼 바르트, 본회퍼, 리브, 브루너, 베네트 등을 논하면서 종합적으로 현대교회의 국가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16세기 개혁자들의 교회와 국가이해”와 “칼빈의 신학사상을 통해 본 교회와 국가의 상관성 연구”를 문희인과 홍정의가 각각 발표하였다. 이 논문들은 현대 교회들이 국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를 이들 개혁자들의 사상을 근거로 하여 논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비교, 연구한 논문들도 다수 있다. 장경근은 “칼빈, 루터의 국가관 비교연구”를 발표하였고 양요섭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치윤리

사상”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개혁자 루터, 칼빈, 쾰링의 사상을 비교하여 논하였다. 이 비교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각 개혁자들의 국가관을 서술하면서 그들의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규는 “칼빈과 급진주의적 재세례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칼빈과 재세례파의 상반된 국가관에 대한 신학적 정치적 관계를 우호적인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종교개혁 당시의 국가관 연구들은 개혁자 개인의 사상과 입장 등을 반영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칼빈과 루터를 중심으로 또는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당시 제3의 세력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4세기 때부터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어 온 신앙고백에 대해서는 연구와 관심이 크지 않았다. 신앙고백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종교개혁 당시를 배경으로 작성된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에 대한 연구는 “개혁교회신앙고백에 나타난 교회론”과 “개혁교회신조에 나타난 존 칼빈의 예정론”¹⁰⁾ 정도로 조사되었다.

초기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을 연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신앙고백은 그 시대 그 교회가 필요로 해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역사의 한 전환점으로 경제와 사회, 문화, 정치사상에 큰 변화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세를 지배하던 가톨릭교회의 국가관에도 변화가 있었다. 개혁교회들은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가톨릭교회와의 대결구도 속에서 체계화되었다. 이들 개혁교회 신앙고백들은 개혁교회의 신념이 가톨릭교회와 다르다는 것과 참 진리를 개혁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칠 목적으로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였다.

이것은 곧 교회 안팎에서 야기된 거짓 교리에 대항하고 개혁교회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를 보존하고 그러한 삶을 성도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이렇듯 신앙고백서를 연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0) 조성광, “개혁교회신앙고백에 나타난 교회론”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3); 이승학, “개혁교회신조에 나타난 존 칼빈의 예정론”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1983).

그래서 연구자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신앙고백서 특히 종교개혁을 시대적 배경으로 형성된 개혁교회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 대표적인 3개의 신앙고백서 즉 벨직신앙고백서, 제2스위스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신앙고백서에 나타나는 국가관을 살펴봄으로 국가와 기독교인의 관계이해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2. 국가와 국민의 정치적 위치와 성격

초기 개혁교회 신앙고백서에 나타나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형성은 국가권력의 존엄성과 권한의 신적 부여라는 관점과 국민의 원칙적 복종의무의 설정이 기본적인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신적 기관으로서의 국가가 지니는 존엄한 위치와 국민의 원칙적 복종관계를 나타내는 제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국민에 대한 신적 기관으로서의 존엄한 국가의 위치

종교개혁 시대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은 중세의 양대 세력인 교회와 국가가 서로 세력 다툼을 벌여 자기 본분과 책임을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까지 침해하기에 이르렀다. 교회는 세속 및 정치적 이권에 깊이 간여하여 신앙의 생명력을 잃었으며 국가는 교회의 권한인 성직 임면권과 교회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였다.¹¹⁾

이런 시대상황 속에서 초기개혁교회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기초하여 교리적인 문제들을 취급할 뿐 만 아니라 시대적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답을 제시하고자 했다. 초기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은 성경에 기초한 교리의 체계화 작업과 더불어 현실적 과제로서 대두되는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국가와 통치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적 기초위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11) 김기륜, “마틴 루터의 세상당국과 공권력 이해,” **신학사상** 122집, 가을호 (2003), 227.

2.1.1 국가권력의¹²⁾신적(神的) 기원(起源)

국가관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국가 혹은 권세의 출발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이다. 신앙고백서들은 국가, 권세의 출발을 신적인 기원에서 찾고 있다. 국가권력의 신적 기원은 당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자처하던 교황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을 반대하여 칼빈이 왕의 권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주장하였던 주제였다.

벨직신앙고백은 국가의 기원 혹은 통치 권력의 필요성을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운 하나님이 인류의 타락 때문에 왕과 군주와 관리들을 지명하시고 세계가 어떤 법률과 정책으로 통치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의 안녕과 종교적인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그들에게 지웠다고 한다. 여기에 원칙적으로 속권과 교권을 구분하였고, 각각의 고유한 존재 목적과 기능을 서술해 놓았는데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권력자들을 정하셨다고 한다.

제2스위스 신앙고백 역시 어떤 종류의 위정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위정자는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행정 관료직은 하나님 자신이 세우셨는데 목적은 인류의 평화와 안녕이다.”고 밝히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위정자를 세우셨다고 진술하고 있다.¹³⁾ 즉 “모든 우주의 최고의 주님이며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행정 관료들을 정하시고 그의 아래에 두시고, 국민을 다스리도록 정하셨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신앙고백서는 공통적으로 권력의 신적 기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하여 한정일에 의하면 일반인류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은 국가의 기

12) 오늘날 성서해석의 대부분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개념이 “국가”, “정치적 권력”, “공적 질서”, “세상적 권위”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에 더불어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신앙고백서에서 “위에 있는 권세”의 성격을 지닌 “위정자”, “행정관료”등의 용어도 같은 맥락의 의미로 간주한다.

13) Gordon H. Clark,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나용화 옮김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2), 271.

원을 원시시대의 인류생활은 주로 혈육관계에 속한다는 의식 내지 공동신(共同神)에 속한다는 의식을 기초로 하여 경제적 이해나 공동방위의 필요와 결부되어 성립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권력의 기초를 각 사람의 인격과 재산의 방위와 각 사람의 자주, 자유, 독립의 보장을 얻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계약에 두거나 국가의 기원을 가족투쟁, 정복관계에서 찾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를 경제상 지배계급이 다른 계급을 권력으로 억압하여 자기들이 지지하는 일정한 생산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도록 사회관계를 통제하는 기구로 보는 견해와 인류의 공동생활 발전과정에서 특히 가족 내의 가부장(家父長)의 지배권확립과 동시에 국가가 나타났다는 견해 등이 세속사에서의 국가의 기원이론들 이라고 정리하고 있다.¹⁴⁾

이와 같은 세속적 국가기원론과는 달리 어거스틴은 국가권력의 신적 기원을 주장하였다. 어거스틴은 국가의 기원을 신적 기원으로 보았는데 “통치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네로까지도…….”라고 하여 국가와 정치질서는 타락후의 파괴된 인간사회를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¹⁵⁾

루터에 의하면 이 정치적 권력은 “창조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로서 이 세상에서 행악 자들을 제어하고 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¹⁶⁾고 보았다.

그리고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지상의 권세가 왕이나 다른 통치자의 손에 쥐어진 것은 인간의 완고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된 것이다.”¹⁷⁾라고 하였다. 즉 국가는 창조 시부터 신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음으로 존재하는 기관으로 국가와 교회는 다 같이 신의 절대적인 주권아래 신의 뜻에 순종함으로 평화적 체계로 유지하면서 공존과 협조를 해야 할 기구들로 보았다.

14) 한정일, “전통적 국가관의 비교논적 고찰(상),” 행정대학원연구논집 제8권, 건국대학교 (1980): 65-73.

15) 김명혁, “어거스틴의 교회관과 국가관,” 신학지남, 제43호 (서울: 신학지남사, 1976.), 30.

16)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83.

17) 존 칼빈, 기독교강요, 김문제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77), 59-60.

현대 신학자인 칼 바르트도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그는 국가의 기원을 로마서13장 주석에 기초하여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본회퍼는 국가의 신적기원을 “위임”의 사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국가는 세계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질서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존할 신적 위임체로 보았다. 즉 그에 의하면 국가의 존재는 인위적으로 국가가 성립된 것이 아니며, 사회적 산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에 근거를 두었고 성경에 의해서 밝혀진 신으로부터의 구체적 위임으로 보았다.¹⁸⁾

이와 같은 사실을 임택진은 “지상의 권세자체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상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권세를 지상의 특정인에게 주셨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¹⁹⁾는 증거로 보았다.

2.1.2 인적(對人的), 영적(靈的) 책임성을 지닌 국가

하나님이 국가, 권력을 창출하시고 권력자를 세우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권력기관과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세속제도를 정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앙고백서들은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국가가 지녀야 할 책임성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임성들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통치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복종이라는 관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책임성은 대인적 차원의 책임과 영적 책임성으로 나타나는데 인적 차원의 책임요소는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증진, 그리고 국민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수행권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영적 책임성은 신앙생활과 직접 관련된 요소들로서 나타난다.

벨직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이 왜 세속권력을 제정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사람들의 황폐가 저지되고 모든 것이 질서 있고 보기 좋게 운영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18) 김기남,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교육대학원, 2001), 38.

19) 임택진, **신앙고백서해설**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6), 171.

전제하고 더불어서 이 권세의 목적의 또 다른 측면을 서술하고 있다. 즉 “그들의 직책은 단지 국가의 복지를 존중히 여겨서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고 거룩한 목회사업을 보호하며, 모든 우상숭배와 거짓된 하나님예배를 제거하며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부연하고 있다. 이는 세속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2가지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첫째는 세속복지차원으로 세속사회의 복지를 위해 경계하고 둘째로, 성역(sacred ministry)을 보호하는 것을 중심 직무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는 권세의 목적을 “인류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행정 관료를 제정하셨다.”고 밝히고 있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하나님이 세상권력을 세우신 목적을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중세시대의 어거스틴의 주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어거스틴은 국가권력의 목적을 세속적 평화를 보호할 기능도 발휘해야 하지만, 또한 참된 하나님예배를 권장하며 우상숭배를 막는 일에 그 권력을 행사해야하며, 가능한 최대한으로 하나님 예배를 확장시키는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시녀가 되어야한다²⁰⁾고 주장하였다.

이런 국가권력의 목적은 루터의 주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루터에 의하면 국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야한다. 루터의 대요리문답에서 하나님과 정부, 정부와 시민이라는 하향적 관계를 예를 들면서 정부는 시민에 대해 아버지다운 신분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은 아버이를 통해 자식을 기르듯이 시민 통치자를 통해 음식과 가정과 땅을 주시고 안전과 보호를 주신다. 따라서 아버지들은 하나님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고 그들의 직분에 대해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²¹⁾

그래서 루터는 교황권으로부터 세속권을 확립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반

20) 이장식, **기독교와 국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104.

21) 안상기, “Martin Luther’s theory of the two kingdom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church”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0), 181.

대로 세속권이 교회를 간섭하는 것도 거부하였다.²²⁾

칼빈에게 있어서 국가는 인간의 의식주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며 인간의 보건, 사회, 질서, 재산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동시에 칼빈은 국가의 사명을 교회의 외부적인 면을 돌보고 보호하며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며 사회 질서와 조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적법생활을 지도하며 국민의 공통된 유익과 평화를 확립하는 것으로 보았다.²³⁾

베자는 공직자의 역할을 세속적 영역과 성스러운 영역, 사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까지 확대시키고, 공직자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았다.²⁴⁾

이처럼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임명하시는 가장 우선적 목적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촉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안녕과 보호를 위해 침략적 전쟁에 대해 적극적인 참전과 국민의 절대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2.1.2.1 인적(人的) 사명

2.1.2.1.1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증진

칼빈은 국가의 기능을 말하면서 종교적인 영역의 의무와 더불어 대세상적 사명을 언급하고 있다. 국가의 목적은 공공의 평화를 흐트러지게 하지 않고 각 사람이 자기 소유를 완전히 손해 보지 않고 보존하게 하며, 사람들 가운데서 악의 없는 교제를 하게하며 그들 사이에 청렴과 절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²⁵⁾ 이처럼 세속권력도 보통 은혜의 열매인 동시에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로마서 13장에 의하면, 권세들은 사회 안의 선한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되었다고 한다. 이들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22) 김기린, “마틴 루터의 세상당국과 공권력 이해,” **신학사상**, 122집 가을호 (2003), 227.

23) 이장식, **기독교사상사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299.

24) 배준완, “16세기 칼뱅주의의 저항권”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8), 20.

25) 존 칼빈, **기독교강요**, 김문제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77), 767.

선한 질서유지에 대한 거부이기도하다.

그러므로 세속권력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선을 위해서 지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발되었으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한 일이 그들의 신하들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들은 백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 하는 악인들의 오만불손한 행동을 강제로 진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요청하는 대로 그들의 죄악에 처벌을 내리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²⁶⁾라고 하였다. 따라서 세속권력은 공공복리와 질서유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백성의 기본적 삶을 가능하게 한다.

루츠 폴은 국가의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역할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그 행동에서 구속력을 가진 권위로 무장된 질서 수호적 세력으로서의 세계와 마주 서게 되는데 이 마주섬의 위치에서 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로 세상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의 안녕한 삶을 국가는 보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세속권력은 하나님의 종, 관리, 보조자 등 확고하게 정해진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선에 봉사하는 방향에서 세속권력의 실체와 역할을 존중하고 거기에 협조자가 되어야한다²⁷⁾고 했다.

한편 본회퍼는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라는 국가권력의 목적을 율법의 제1용법과 유사한 기능으로 보았다. 이는 세속권력이 율법적 기능²⁸⁾을 수행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신앙고백서들 가운데는 세상 질서에 대한 그리스도 교

26) 존 칼빈, **로마서빌립보서**, 존 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407.

27) 루츠 폴, **그리스도인과 국가: 로마서13장 연구**, 손규태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183.

28) 루이스 벨코프의 “조직신학”에서는 율법의 대표적인 3가지 기능을 말하는데 첫째는 정치적 혹은 세속적 용도로써 율법은 죄를 억제하고 의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둔다. 이 율법은 적어도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보통 은혜의 목적을 둔다. 둘째는 몽학선생으로서의 용도인데 율법은 인간에게 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시행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용도는 규범으로서의 용도인데 율법은 신자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신자들에게 의무를 확인시켜주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등이다.

회의 관심이 율법의 제1용법에 대한 가르침에 규정되어 있다고 본다. 즉 율법의 제1용법에서는 교회가 세계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 밑에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제1용법은 세상 질서 속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세상 질서를 중요시하며, 세상 질서의 종교화를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들의 진정한 세상성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세속권력의 율법적 기능들을 통해 이 세상 질서들은 진정한 세상성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것²⁹⁾으로 본 것이다.

루터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사악한 본성을 억제케 해서 그들의 행동이 불법인 것을 알게 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섭리적 도구들을 통해 현세에서의 인간의 불의에 벌을 주고, 하나님의 법에 외면적으로 일치된 행동에 보상하는데, 이러한 섭리적 도구들은 현세에서의 악을 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한편 칼빈은 국가권력에 의한 죄의 억제 뿐 아니라 보통 은혜의 역사로 인해 개인과 사회생활에서의 죄가 억제된다고 보았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화시키지는 않을지라도 이를 내적인 규제하에 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만약 주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정욕 가운데 방종하게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바울이 고소하는 모든 범죄를 자신의 본성이 범할 수 없다고 증명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여기서 인간은 내적일 수도 있고 외적일 수도 있으며 양면적일 수도 있는 규제하에 놓이게 된다³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악을 제어함으로써 법의 정신이

29) 디리히 본회퍼,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83.

30) 루이스 벨코프, **조직신학 하**, 권수경·이상원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687-688.

되는 정의와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김성호에 의하면 세속권력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소극적인 행동을 취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증진할 의무가 주어졌다. 즉 세속권력의 목적은 보다 적극적인 면에서 선을 증진시키는 일이며, 이것은 악의 억제와 분리할 수 없는 기능으로 이해된다.³¹⁾ 더불어 김성호는 세속권력이 선을 목표삼고 선을 실행할 수 있는 이유는 보통은혜 때문으로 보았는데, 보통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비록 영적인 특성은 결여하고 있지만 소위 시민적 의, 세속사 혹은 통상적인 사건에서의 의로운 일,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연적 선행들, 하나님의 법과 외면적으로 객관적인 조화를 이루는 일들의 수행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보았다.³²⁾

2.1.2.1.2 신적 권위로서의 전쟁수행권

국가의 통치행위, 국가행위의 주요한 한 요소는 전쟁이다. 전쟁은 인간의 생명, 신체, 재산, 가정에 대한 심각한 위해(危害)요소이며 전체사회를 뒤집어엎을 정도의 격변의 주요인이며 엄청난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제이다.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1780-1831)에 의하면 “전쟁이란 단지 정치 행동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정치의 도구요 정치적 제 관계의 계속이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실행이다.”³³⁾고 했다.

신원하에 의하면 기독교의 정당전쟁론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던 4세기경부터 득세하였다고 본다. 암브로즈와 어거스틴은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즉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보호하고 평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³⁴⁾

이러한 전쟁에 관한 견해도 신앙고백서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31) 김성호, **교회와 국가** (서울: 엠마오, 1991), 66.

32) 루이스 벌코프, 689.

33) 주경로, **거룩한 전쟁**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53.

34) 신원하, “반전운동의 재점화를 보며 생각해보는 우리시대의 전쟁,” **날마다 주님과**, 11·12월호 (2005), 179.

2.1.2.1.2.1 전쟁의 원칙과 목적

신앙고백서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전쟁을 승인하고 있다. 전쟁의 정당성은 전쟁을 통해서 국민의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제2스위스 신앙고백은 “만약 나라의 일반적인 안녕과 정의가 전쟁을 요구할 시에는 필요한 전쟁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벨직신앙고백은 전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비록 벨직신앙고백서에는 전쟁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는 없지만 권력의 기원이 하나님께 기원하고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는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도 전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본다.

어거스틴은 구약과 신약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전쟁이 비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정당전쟁론은 토마스 아퀴나스, 칼빈을 거쳐 현대 신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정당전쟁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인데, 위정자들은 이를 유지하고 때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위와 검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선한 목적,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전쟁을 할 경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전쟁으로 간주된다.

라인홀드 리브는 평화주의를 이상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강력한 힘의 원리하에서 전쟁을 이해하고 있다. 즉 리브는 기독교적 사랑과 용서만으로 현실문제와 특히 국제 사회의 살벌한 분쟁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과 현실적 악은 결국 강력한 힘으로 견제하고 억제해야 질서와 평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³⁵⁾

A. A 하지는 위정자는 공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자위권(自衛權)과 자위의 의무는 자연의 버릴 수 없는 본능과 이

35) Ibid., 181.

성과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류의 보편적 찬동으로 확립되는데 만일 개인이 자위의 목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옳다면, 동일한 원칙에 따라 공동체가 그렇게 하는 것도 동등하게 옳다고³⁶⁾ 주장했다.

2.1.2.1.2.2 국민의 자발적 순종으로서 전쟁참여

전쟁중에 있는 국가에 속한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전쟁에 참여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해 신앙고백서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의 절대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전쟁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며, 일반적인 안전을 위해 그들의 피를 흘리고, 위정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전쟁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제2스위스 신앙고백은 “그들의 생명을 내려놓고,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피를 소진하고, 위정자를 방어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즐겁게 수행하시오”라고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의 적극적인 마음의 각오와 자세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국가의 전쟁수행에 대해 국민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정자의 임의적인 전쟁여부의 판단에 대해서 바른 판단인지를 불문하고 국민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며, 더 나아가 위정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쟁참여자의 자세는 전쟁이 여호와와의 간여하심으로 인하여 기록해야 한다는 성전(聖戰)사상³⁷⁾과 관련이 된다.³⁸⁾ 특히 전쟁 참여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수식어인 “자발적으로, 용감하게, 즐겁게”라는 적극적이며 역동적인 표현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촉

36) A. A. 하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해설, 김중흠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389.

37) 강성열 교수에 의하면 성전개념은 야훼 하나님을 ‘용사’나 ‘전사’로 보는 출15:3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삼상17:47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나님의 참여와 인도로 승리를 거두시는 신앙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데서 출발된다고 보았다.

38) 강사문,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26집, (2002): 42.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쟁 참여자의 자세는 김영철이 설명하는 기독교전쟁관의 특징 중 몇 가지 사항과 관련지을 수 있다. 김영철은 전쟁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원을 간구하는 모습,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확신하는 태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 승리한다는 확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의 태도 등을 기독교전쟁의 특징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들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전쟁의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되는 신앙적 결단으로서의 전쟁수행을 가능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⁹⁾ 여기서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신학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신앙고백서는 신원하가 “전쟁의 정당성은 결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세운 이론으로 이해해야 한다.”⁴⁰⁾는 주장처럼 최소한의 전쟁만을 허용하고 있다.

2.1.2.1 영적(靈的) 사명

제2스위스 신앙고백은 위정자의 주된 의무를 평화와 공적인 안녕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위정자의 주된 임무는 의심의 여지없이 공공의 안녕과 평화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책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벨직신앙고백서는 위정자들의 구체적 사명을 “단지 국가의 복지를 존중히 여겨서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고 거룩한 목회사업을 보호하며, 모든 우상숭배와 거짓된 하나님 예배를 제거하며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파괴되며 그리스도의 왕국이 신장되게 하려는 것이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는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참된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9) 김영철, “기독교에서 본 법과 평화사상,” *아카데미論叢* 제11집, (1983): 80-81.

40) 신원하, 182.

이처럼 세속권력의 두 번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다. 신앙고백서에서는 국가권력은 분명한 영적 사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세속권력이 비록 세상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신적 사명과 관련성이 부인된다면 세속권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속권력의 영적 사명에 대해 칼빈은 “정부의 할일은 정당한 정치활동을 통해 순수한 복음 설교와 봉사(예배)를 맡은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며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훼방과 그 밖의 종교에 대한 방해가 사람들 가운데서 공공연하게 일어나 만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⁴¹⁾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형기에 의하면 칼빈의 국가의 영적 사명은 인간이 이 땅위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 주며, 경건의 교리와 교회의 위치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⁴²⁾ 이와 같은 견해는 본회퍼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본회퍼는 국가에 대한 교회의 요구에 대해서 교회는 국가에게 교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폭력과 신성모독으로부터 기독교인의 공적인 선교를 보호하고 자의적인 침해로부터 교회의 질서를 보호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가운데 사는 기독교인의 생활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자를 보호하고 진정 그들을 찬양하는 것, 달리 말하여 종교를 보호,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와 책임에 속한다고 하였다.⁴³⁾

한편 A. A.하지는 위정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시키는 구체적 방법에 현실적인 문제에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영역들 즉 교육, 도덕, 물질적 번영, 생명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 질서유지 등도 포함된다고 보았다.⁴⁴⁾

41)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 (서울: 성문, 1993), 963.

42)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4), 499.

43) 김기남,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교육대학원, 2001), 39.

44) A. A.하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해설**, 김종흠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388.

2.1.2.2.1 복음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궁극적이며 최우선의 과제는 복음전파이다. 세속권력은 이 복음전파가 극대화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회퍼에 의하면 하나님의 위임에 의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한다고 한다.⁴⁵⁾ 한편 루터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고, 국가는 외적인 질서와 평화를 책임지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말씀(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세상 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⁴⁶⁾

그러나 루터는 국가의 목적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수이기 때문에 국가는 그 권력으로 외부적 의를 시행하여 악한 자들이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복음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⁴⁷⁾

종교개혁과 더불어 개혁자들의 주된 관심은 성례에서 말씀으로 옮겨갔다. 루터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을 강조하였다. 대신 성례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성례는 가시적인 말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⁴⁸⁾

한편 루츠 폴은 교회는 국가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질서에 연관된 국가를 지원한다고 보았다. 대신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국가에 모든 차원에서의 선포를 위한 영역 즉 교회 내적으로나 세계 형성적이거나 ‘정치적 예배’, ‘기도’ 등을 요구하는 관계로 보았다.⁴⁹⁾ 그리고 율법은 인간의 마음 속에 죄를 상기시킴으로써 회개를 일깨우는 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⁵⁰⁾

45) 본회퍼, **옥중서간**, 고범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232.

46) 김기련, “마틴 루터의 세상당국과 공권력 이해,” **신학사상** 122집, 가을호 (2003), 245.

47) J. L. Neve, **기독교교리사**, 서남동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361.

48)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하**, 권수경·이상원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868.

49) 루츠 폴, **그리스도인과 국가: 로마서13장 연구**, 손규태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211.

50)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하**, 873.

한편 쾨빙글리는 국가권력이 보호해야 할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사면되었다는 좋은 소식”으로 보았고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삼위일체의 제2위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⁵¹⁾고 했다. 이는 성경의 중심메시지는 복음이며, 복음이야말로 성경해석의 유일한 열쇠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개혁교회와 개혁자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당시 가톨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인정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가톨릭교회는 자신들의 교회가 성경을 창출했으며 정경을 결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음을 주장한다.⁵²⁾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다. 말씀의 선포와 동시에 성례의 시행 역시 교회의 권세이며 의무이다. 그러나 성례는 복음을 귀가 아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상징일 뿐이다.

그래서 루터나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존중하며, 실로 말씀이 성례보다 우월하다고 간주했다.⁵³⁾

특히 루터에게 있어서 말씀은 성육신하신 주님이시며 말씀은 성경이고, 성경은 말씀에 대한 증거였다. 그리고 말씀은 선포이고 이 선포를 통해 성경의 말씀이 신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들려지는 것⁵⁴⁾으로 보았다.

루이스 벌코프는 복음전파를 또 다른 그리스도의 통치로 보았다. 즉 그는 교회를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주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권위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신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주권적인 통치자이듯이 그의 말씀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으로 여겨졌다.⁵⁵⁾

51)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 (서울: 성문, 1993), 139.

52)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사상사** 전3권, 이형기·차종순 옮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92), 3:70.

53)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하**, 871.

54)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사상사** 전3권, 이형기·차종순 옮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92), 3:68.

55)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하**, 871.

2.1.2.2.2 그릇된 예배의 개혁

벨직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이 왜 세속권력을 제정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사람들의 황폐가 저지되고 모든 것이 질서 있고 보기 좋게 운영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이어서 이 권세의 목적의 또 다른 측면을 서술하고 있다. 즉 “그들의 직책은 단지 국가의 복지를 존중히 여겨서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고 거룩한 목회사업을 보호하며, 모든 우상숭배와 거짓된 하나님예배를 제거하며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부연하고 있다.

그리고 제2스위스 신앙고백은 위정자들의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사명을 크게 4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즉 “진리에 대한 설교, 순결하며 신실한 믿음에 관한 설교, 그리고 모든 불경건과 우상숭배로 물든 거짓과 미신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어하는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교회는 위정자에 대해 영적인 영역에서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무를 감당할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루이스 벌코프에 의하면 가톨릭교회는 성골과 성상들도 은혜의 방편으로 간주하였으나 말씀과 성례에 대해 당연한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은 말씀에 대해 다만 은혜의 사역에 있어서의 예비적인 의미만을 부여하였다고 한다. 대신에 가톨릭교회는 말씀과 비교하여 성례를 진정한 은혜의 방편으로 간주하였다. 더 나아가 가톨릭교회는 점진적으로 발전된 조직체를 성례보다 훨씬 더 우월한 방편으로 인정하게 된다.⁵⁶⁾

이러한 가톨릭교회의 행태에 대해 개혁교회는 그릇된 예배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정을 개혁자들은 시도하였다. 칼빈은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모독과 그 밖의 종교에 대한 침해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 만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국가의 종교적 목적으로 보았다.⁵⁷⁾

56) Ibid., 867.

57) 존 칼빈, 기독교강요, 김문제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77), 767.

그래서 칼빈은 우상숭배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우상숭배와 교황청의 미신 즉 성상숭배 등을 정죄한다고 보았고 여기에서 칼빈은 가톨릭교회의 성상사용은 구약 성경에서 이교도들의 우상숭배를 반대했던 모든 비난과 동일하다고 여긴다. 하나님이나 혹은 신성(神性)을 성상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소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며 하나님은 물질적인 징표로써는 자신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성상들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것은 기껏해야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성상숭배를 우상숭배로 인정한다 해도 변명이 되지 못한다.⁵⁸⁾고 보았다.

쯔빙글리 역시 예배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캔톤 내의 성직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성상들의 사용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은 “요약기독교개론”(A brief Christian Introduction)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그는 성상숭배, 성직자의 독신, 미사 집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⁵⁹⁾ 그래서 주리히 시의회는 교회당으로부터 모든 성상들을 제거해 버리도록 명령하였다. 성전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벽을 회계 칠하는 등의 일들을 단행하였다. 쯔빙글리는 이와 같은 우상들과 오르간들의 제거야 말로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사물들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승리라는 매우 청교도적 관념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미사를 반대하였는데 성체숭배 역시 우상으로 규정하였다. 즉 성체숭배는 물질적 대상을 우상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가톨릭교회는 당시 예배의 중심과 가장 중요한 행위로서 전통적으로 성찬 예식에 두었다.⁶⁰⁾ 예배를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다른 의사 전달 방법, 즉 선포된 말씀과 상징행위가 중요하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그 후속 신학에서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리

58) 후스토 L. 콘잘레스, **기독교사상사** 전3권, 이형기·차종순 옮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92), 3:189.

59) 루이스 W. 스피츠,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150.

60) 로버트G. 레이번, **예배학**, 김달생·강귀봉 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4), 302.

고 인간의 말을 통한 복음전파와 선포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⁶¹⁾

이런 일련의 발전이 16세기 말씀의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가톨릭교회는 별로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개혁신교회의 전통은 말씀 선포에 중점을 두게 된다.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식을 설교와 회중의 찬송 및 자국어로 진행하는 것에 크게 공헌했다. 루터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점차 말씀의 선포, 또는 반(反)성만찬의 경향은 점차 루터 교회의 주일 예배에서 받아들여져 말씀과 성만찬이 함께 행해지던 과거의 전통이 바뀌는 개혁의 물결을 타게 되었다.⁶²⁾ 그래서 개혁신교회는 가톨릭교회의 성찬 중심의 예배가 거짓된 예배라고 단정하고 위정자들에게 참 예배로서 말씀중심의 예배로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이상에서 하나님의 국가권력의 제정의 목적을 살펴보았다. 국가권력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인적 사명과 영적 사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와 국가의 이러한 형태상의 차이는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역할 분담의 차이라 할 수 있으며⁶³⁾ 국민들은 국가권력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점에서 복종적 태도를 보여야 할 명분이 설정된 것이다.

2.1.3 신적(神的) 대리자로서의 통치자

신앙고백서들은 세속권력의 기원과 더불어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아래 택함 받은 자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통치자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초가 된다. 이처럼 통치자들의 기원이 하나님께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최고의 자리의 주인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래 단에 있는 존재가 위정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우주통치에 비하여 세속 통치는 하급기관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치자의 위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설정되어 있다.

61) 제임스F. 화이트, *기독교예배학입문*, 정장복 옮김 (서울: 엠마오, 1992), 125.

62) Ibid., 148

63) 김균진, “교회와 국가의 관계,” *연세교육과학* 제42집, (1993): 121.

2.1.3.1 통치자의 통치원리

제2스위스 신앙고백은 위정자들이 비록 세속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통치의 위치에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사항은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이다.”고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손에 쥐고 그에 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살펴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다스림의 원리가 되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허락된 선한 법에 의한 통치이다. 이 법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개혁자인 루터도 크리스천 군주가 이행해야 할 통치원리를 4가지로 말하였다.

첫째, 군주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에게 성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둘째, 그의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하며 기독교 정신으로 그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셋째, 자신의 조언자들과 신하들에 관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냉철한 판단으로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한다.

넷째, 군주는 악행 자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단호해서는 안 된다.⁶⁴⁾

2.1.3.2 통치자의 신적(神的)성격

제2스위스 신앙고백은 위정자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국민들은 위정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고 존경과 경의를 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정자들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치자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를 보여야 할 의무가 형성되는 것이다.

칼빈은 통치자의 위치를 “통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신적 권위를 부여

64) 김기린, “마틴 루터의 세상당국과 공권력 이해,” **신학사상** 122집, 가을호 (2003), 233.

받은 자로서 사실상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였다.⁶⁵⁾ 이렇듯 칼빈은 통치자들을 신의 대리자로 보았다. 즉 통치자들은 신의 대리자로서 신의 섭리와 보호와 인애와 공의의 어떤 형상을 재현시켜야 할 존재로 본 것이다.⁶⁶⁾

한편 본회퍼도 세속권력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였다.⁶⁷⁾ A.A.하지는 위정자의 역할은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을 이루며”,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로 보았다.⁶⁸⁾

베자는 공직자의 역할을 세속적 영역과 성스러운 영역, 사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까지 확대시키고, 공직자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았다.⁶⁹⁾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의 아버지로서 대리권을 위정자들에 부여하시고 간접통치를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자격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위정자 안에서 하나님의 유익케 하심을 인정하도록 명령받았고 위정자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는 항상 순종적이며 하나님께 대하듯이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스위스 신앙고백의 결론 부분에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시는 데 그 축복의 대상을 3분류로 나누어 기원하고 있다. 첫째는 국민의 통치자들, 둘째는 우리(일반국민), 셋째는 그의 전 백성들로 나열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통치자들에게 먼저, 다음으로 일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아래 있는 그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순

65) 신복윤, “칼빈의 국가관,” **신학지남**, 제40호 (서울: 신학지남사, 1973), 12.

66)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 (서울: 성문, 1993), 965.

67) 본회퍼, **옥중서간**, 고범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297.

68) A. A.하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해설**, 김종흡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387.

69) 배준완, “16세기 칼뱅주의의 저항권”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8), 20.

서들을 볼 때에 단연코 위정자들에 대한 배려와 권위를 최고의 위치에 놓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위정자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2.1.4 무력의 포괄적 사용에 대한 신적 제가(制可)

2.1.4.1 무력사용의 신적 권위

루터에 의하면 세상권세와 검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로써 제정 되었다는 것이다. 루터는 항상 파멸시키는 사탄적 힘으로부터 인간사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나라 곧 질서유지의 힘으로서 세상권력을 세웠다고 본다. 그러므로 루터에게는 누가 검을 소유할 권리를 갖고 있나? 가 중요했다. 누가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검을 사용하도록 명령되어졌는지가 중요하였다. 검의 권리 즉 무력은 질서를 유지하고 악한 자들을 징계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도록 명령된 세상권세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검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루터는 세상권세에 대항하여 봉기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악한 범죄라고 보았다.⁷⁰⁾

이처럼 하나님은 국가나 세속권세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위해 힘을 주셨다. 이 힘에 의해 국가나 권세는 무질서하고 비신앙적인 세계의 질서를 잡고 그들의 존재 목적을 수행케 하신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신앙고백서들은 인정하고 그 무력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의 위임에 근거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벨직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률들과 정책들에 의해 통치되도록 제정하셨다.”고 한다. 특히 여기에 사용되는 무력을 단순한 위정자의 무기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라고 명시

70) 김기린, “마틴 루터의 세상당국과 공권력 이해,” 신학사상 122집, 가을호 (2003), 244.

하고 있다. 이 표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음을 나타내며, 그 누구도 이 무기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본회퍼는 국가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법질서 및 무력적인 강권을 통하여 이 세계가 그리스도의 실재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무력의 사용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⁷¹⁾고 하였다. 그리고 브루너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와 국가의 법이라고 했다.

루터는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법을 만들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국가가 교회에 예속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국가 스스로의 권한으로 법을 제정하여 통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⁷²⁾ 키케로는 법률을 “나라의 정신”이라고 했으며 이것이 없이는 집권자도 존재하지 못하며 또한 통치자 없이는 법률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률은 무언의 집권자이며 집권자는 살아있는 법률이라고 하였다.⁷³⁾

2.1.4.2 무력 사용의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명시는 하나님이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위 정부에게 무기와 가장 높은 외적인 힘을 주셨으며 그 목적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수행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권력에게 사명과 목적을 주셨다. 그러나 이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권세자들에게 무기를 주셨다고 고백서는 밝히고 있다. 세속권력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명확한 표현은 그의 권력, 즉 그가 지니고 있는 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71) 몰트만, **본회퍼의 사회윤리**, 전경연 편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5.

72) 이장식, **기독교사상사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300.

73)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 (서울: 성문, 1993), 991.

비록 세속권력이 죄를 범하고 윤리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에도, 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하여 위정자들에게 무기를 쥐어주셨으니, 악행 자들을 벌하시며 선행자를 상주기 위함이다.”고 밝히고 있다. 하나님이 국가의 선한 목적을 위해 무기를 부여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칼빈은 위정자들이 칼로 무장된 것을 단지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행악 자들을 후려치기 위해서라는 점을 밝힌 바울의 말에 “칼의 권리를 입증하는 훌륭한 대목”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로서의 자격으로 위정자가 그의 손에 놓여 있는 칼의 사용을 긍정하고 적극적인 사용을 장려하였다. 즉 “주님께서 위정자를 무장하면서 그에게 칼을 사용하도록 위임하셨다면 그가 죄 있는 자들을 사망으로 처벌할 때 마다, 그는 하나님의 재앙을 수행함으로써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셈이다.”고 밝혔다.⁷⁴⁾

본회퍼는 하나님이 주신 무력을 국가나 세속권력이 외적인 정의의 수호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이 무력은 국가가 의식하던 안하던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국가는 칼의 힘에 의하여 외적 정의와 질서를 확립하여야 하며, 그것은 곧 교회가 평화로운 가운데 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으로서 이것의 결국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⁷⁵⁾

양낙홍에 의하면 악한 자들을 제압하고 악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정부는 ‘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질서 유지를 위해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⁷⁶⁾ 그리고 본회퍼는 국가권력이 지닌 위탁은 세상의 칼과 법의 힘을 행사

74) 존 칼빈, 로마서빌립보서, 존 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407.

75) 유창기, “교회와 국가관계의 사적고찰과 한국적 상황”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3), 41.

76) 양낙홍, 한국기독교의 사회 윤리적 책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8), 43.

함으로써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지배에 봉사하게 되는데 하나님 대신으로 그에게 오직 그에게만 주어진 칼의 수단으로 외적인 정의를 확보하고 수호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봉사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사회는 외적인 정의의 칼의 힘에 의해서 유지됨으로써 성립한다.⁷⁷⁾고 주장한다. 뿐 만 아니라 무력의 목적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그의 질서와 함께 세례를 보존하기 위한 신적 위임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⁷⁸⁾

제2스위스 신앙고백은 위정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한 목적으로 폭력으로든지 속임수로든지 부정직한 것에 대해서는 억압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벨직신앙고백서는 무기사용의 용례들을 광범위하게 나열하고 있다. 모든 악한 요소들에 적용이 되는데, “모든 죄인들, 이단자들, 도적놈, 살인자, 압제자, 신성모독자, 거짓맹세자, 그리고 하나님이 벌주라고 심지어 사형을 명령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대해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교회는 국가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국가나 세속권세에 대해 막강한 힘을 부여하고 위정자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줌으로 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 국가에 대한 복종자로서의 국민의 위치

신앙고백서들은 공통적으로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세속권력과 통치자들의 기원이 하나님께로 출발하고 또 인간의 양심을 위하여 모든 국민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국민의 국가에 대한 복종의 한계로서의 저항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G. I. 윌리엄스는 국민의 복종 의무에 대하여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77) 디리히 본회퍼,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97.

78) Ibid., 300.

성경은 세속정부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다는 것과 그것의 권세는 피지배자의 동의가 있든 또는 없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는 기독교인들이 그가 거주하는 각 나라의 사실상의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de jure)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합의되어 있다.⁷⁹⁾

한편 어거스틴은 국민은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반항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즉 국가의 목적은 평화와 질서유지의 과업을 수행하며 교회의 일을 대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불완전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국가의 권위에 대하여 국민은 복종해야 하며 반항은 금물이라고 말하였다.⁸⁰⁾

쯔빙글리 역시 모든 사제들은 국가 관리들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그 근거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으로 보았다.⁸¹⁾ 그리고 본회퍼는 국민의 복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복종을 강조하였다.⁸²⁾

2.2.1 복종의 근거

기본적으로 국민은 위정자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 고백서에서는 복종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복종의 근거에 대해 제2스위스 신앙고백은 “하나님은 위정자들을 세상의 아버지로 불리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공직 안에 하나님의 이 유익들을 인식하기 위해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4항에서 “위정자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이 백성의 의무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79) G. I. 윌리엄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해설*, 나용화 옮김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3), 387.

80) 이장식, *기독교와 국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104.

81) 티모디 조지, *개혁자들의 신학*, 이은선·고영민 공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5), 157-161.

82) 본회퍼, *옥중서간*, 고범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75.

벨직 신앙고백서는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조건의 사람일지라도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무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한 국민의 복종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민의 복종 근거를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세속 권세나 위정자들의 기원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는 그들이 자기의 고유한 영역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실시할 때에, 그 정부 하에 있는 사람은 모두 양심을 위하여 복종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종의 근거를 칼 바르트는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요 절대적 소유자라는 점, 둘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적(知的)이며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양심의 주(主)가 되시기 때문이며, 셋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도덕적 행위자들의 최고의 도덕적 지배자시며, 그의 절대적인 완전성과 총괄적인 도덕적 율법이 모든 종류의 도덕적으로 바른 일을 요구하며, 도덕적으로 그른 것은 모두 금지하시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권세에 대한 복종은 곧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된다.⁸³⁾

2.2.1.1 복종의 근거로서의 하나님의 제정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의무가 있듯이 국민을 지배하는 국가나 권세에 대한 복종도 하나님께 대한 복종에 근본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루터에 의하면 신자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의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에 대해서 루터는 시편⁸²편 주석에서 심지어 통치자가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그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것이니 복종해야 함을 주장한다.⁸⁴⁾

83) A. A. 하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해설, 김종흡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393.

84) 안상기, “Martin Luther’s theory of the two kingdom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church”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0), 181.

루터는 통치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기에 절대적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칼빈은 국민의 복종의 근거는 그들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으로서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국민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대표자로서 존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⁸⁵⁾

칼빈에게 있어서 통치자에 대한 불복종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로마서 13장 주석에서 권세자들에 대한 복종의 대상은 어떤 사람도 자신이 복종에 대한 공통적인 굴복으로부터 면제된 것으로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온갖 예외를 제거하기 위해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위정자들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대목을 역병, 기근, 전쟁, 기타 죄악에 대한 처벌이 우리에게 왔다는 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 세상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통치를 위해서 그들을 임명하셨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것을 제시했다.

따라서 본회퍼는 국가나 세속권력에 복종함으로써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세속권세에 복종한다고 해서 시민으로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에게 봉사하게 되는 것⁸⁶⁾으로 보았다.

2.2.1.2 양심을 위한 복종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복종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고백서에는 “양심”이 국민의 대(對)권세에 대한 복종의 근거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칼빈은 국민의 복종의무가 형벌 공포심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신앙 양심상 기쁨으로 순종하고 봉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⁸⁷⁾

85)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 (서울: 성문, 1993), 969.

86) 디리히 본회퍼,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303.

87)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 (서울: 성문, 1993), 1007.

칸트는 양심을 “인간의 내적 법정에 대한 의식”으로 보았고 스펜스(H. Spencer, E. Durkheim)는 사회학적 조건과 필요에 근거하여 해석하였다. 그리고 F.Nietzsche와 S.Freud는 문명에 의한 억압에 근거하여 양심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였다. 그의 20세기 철학자들도 양심의 현상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김희수는 양심은 모든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속성으로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 또는 선악을 판단하는 본능적 속성이라고 정의 하였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어거스틴은 양심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인간의 신적 중심(中心),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 이해한다. 그리고 중세의 위대한 신비가들 역시 양심을 영혼의 정점이며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영혼의 중심 처소로 보며 양심의 가장 깊은 바탕을 “영혼의 섬광”(scintilla animae)에 둔다.⁸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양심을 자연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행동을 위한 외적 원칙인 자연법과는 달리 현재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판단해 주는 주관적이며 실천적인 판단기능으로 보았다.⁸⁹⁾

술리어는 양심을 “이방인과 인간 전체의 마음에 쓰인 법을 매개하는 증언”으로 보는데 그것은 국가나 세속권력 밑에 복종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

빌켄스는 로마서 2장 15절 이하에 따라서 “양심은 인간 내면의 법정으로서 서로 대치되는 사과의 갈등에서 결정적 증언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적 하나님의 심판의 현재적 기준이나 그것은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종말론적 정향된 선악에 대한 기준이다.”고 보았다.⁹⁰⁾

그리고 분회파에 의하면 양심이란 양심이 거기에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가장 높

88) 김희수, “양심의 속성에 대한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제5집 (2002), 157.

89) Ibid., 161.

90) 루즈 폴, 그리스도인과 국가: 로마서13장 연구, 손규태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199.

은 별을 받을 하나의 범정으로 존재하며, 양심의 소리를 경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파괴와 인간 실종의 몰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양심에 거슬리는 행동은 자기의 삶을 거슬린 자살적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⁹¹⁾고 말하였다.

한편 양심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이해는 양심을 순전히 이지적(noetic)으로 이해한 아퀴나스와는 전적으로 달리 칼빈은 양심을 이성과는 별개의 속성으로 생각하였다.⁹²⁾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는 어떤 면에서 십계명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적 법(interior law)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 법의 표현에 대한 내적 감시자(inner monitor)가 바로 양심이다. 그리고 양심은 우리를 도덕적 잠, 즉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부터 깨워준다.⁹³⁾

다시 말해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정의와 올바름에 대한 개념을 새겨주셨는데 그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분별력과 판단력(양심)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정의와 불의, 정직함과 부정직함을 분간하며, 이 양심이 선한 행실은 칭찬하고 추구하게 하며 악한 행실은 비난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심판하며 피하도록 한다고 보았다.⁹⁴⁾ 따라서 칼빈은 백성이 위정자에 복종하는 것은 단순한 권력의 힘 또는 어떤 인간적인 필요성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뜻에서 그들을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자발적인 복종이라 할 수 있다. 칼빈은 위정자에 대한 복종에서 양심의 기능을 그의 로마서 13장 주석에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 정당한 벌의 면제에 대한 가책과 느낌”으로 정리하여 표현하였다.⁹⁵⁾

91) 디리히 본회퍼,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09.

92) 김희수, “양심의 속성에 대한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제5집 (2002), 165.

93)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 (서울: 성문, 1993), 261.

94) 김희수, “양심의 속성에 대한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제5집 (2002), 166.

95) 존 칼빈, **로마서빌립보서**, 존 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409.

이와 같은 견해는 양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식하고 인간의 행동을 감시하며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종은 충심으로 양심적으로 할 것이며 강요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형식적으로 복종할 뿐 아니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통치자들을 자진해서 도와야 할 의무가 형성되는 것이다.

2.2.2 복종의 방식

신앙고백서들은 구체적인 국민의 복종의 방법들을 열거하고 있다. 벨직신앙고백서는 “세금을 바치며, 그들에게 존경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복종하는 일이다.”고 규정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복종의 예들을 3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조세를 납부하고 둘째,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셋째, 기도할 때에 그들을 위해 간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백성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경외하고 존경을 표해야 한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기도하라”고 서술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4항에서 “국민의 의무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조세와 그 외 공과금을 바치는 것이 의무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칼빈 역시 국민의 복종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요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인 정부 통치자에게 국민은 존경과 애정을 표하고 애국충정으로 협력하며 납세와 병역의무를 다하고 그 직무를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⁹⁶⁾

2.2.2.1 위정자에 대한 경의와 존경

신앙고백서에 나타나는 국민의 복종의 방식은 먼저 위정자에 대한 경의와 존경

96)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 (서울: 성문, 1993), 1007.

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칼빈주의 신학자 욥겐(C. Jugen)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사신들로 존경하고 복종해야 함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왕이나 그들이 세우는 법령들에 있어서 신중함과 공정성이 선행되기만 한다면 불변성이란 칭찬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위정자들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하에 있는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권리의 보호자요, 수호자이기 때문이다.⁹⁷⁾

루츠 폴은 국민의 존경과 경외를 로마서 13장 1절에 따른 “복종하는 것”을 해석하면서 이 복종은 어떤 절대적인 “신하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관련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질서에만 순응하는 방식으로 보았다.⁹⁸⁾ 그리고 교회가 국가의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위탁에 상응하는 존경과 인정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⁹⁹⁾

2.2.2.2 납세의 의무

신앙고백서는 현실적인 관세, 조세, 그리고 모든 다른 의무들을 수행할 것을 명한다. 이 세금 문제는 중세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이다. 중세시대에는 교황이 교회는 물론 국가까지 다스리는 교황 주의적 신정정치 통치 형태를 유지하면서 결국 교황과 성직자들을 타락시키고 말았다. 교황이 유럽 각국에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며 그 돈을 사치와 정욕을 채우기 위해 낭비했을 때, 교황에 대한 반발이 곳

97) 크리스토프 욥겐,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 김형익·이승미 공역 (서울: 실로암, 1989), 51-52.

98) 루츠 폴, **그리스도인과 국가: 로마서13장 연구**, 손규태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103.

99) Ibid., 203.

곳에서 일어났다. 유럽의 통치자들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내세워 교황청에 반발하기 시작했다.¹⁰⁰⁾

뿐만 아니라 문예부흥 교황들은 예술을 옹호하고 또한 빈번한 전쟁을 위한 자금을 충당키 위해서 유럽의 금전적인 자원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끌어들이려고 온 힘을 다했다. 그 결과 교황청은 자금을 점점 더 필요로 했고, 또한 자금의 염출을 위해서 갖가지 수단을 다 동원함으로써 교회에는 더욱 큰 짐이 되었으며 동시에 정당성을 점점 잃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금체도로 인해서 유럽을 휩쓸고 있던 민족주의의 파고를 강화시켰다.¹⁰¹⁾

비록 바울은 조세의 용도를 국가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의 신하들의 보호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칼빈은 다른 각도에서 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 즉 조세를 인정하되 2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법에 의해서” 조세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조세의 적절한 사용”에 유의할 것을 위정자들에게 요구했다.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현실적 필요에 대한 요구로서 위정자는 국민에게 조세를 받을 수 있고 국민은 순순히 이에 응할 것을 말하고 있다.

정직한 자들의 평화를 손상시키지 않고 보호하며 악인들의 불신앙적인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고 할 때 그들은 힘과 강력한 후원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법에 의해서 조세가 지불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개인적인 욕망이나 허영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공적인 재산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¹⁰²⁾

100) 김성호, **교회와 국가** (서울: 엠마오, 1991), 90.

101)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사상사** 전3권, 이형기·차종순 옮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3:30.

102) 존 칼빈, **로마서빌립보서**, 존 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408.

고 강조했다. 그리고 개인적 사용에 대해서는 위정자의 양심적 판단과 처분을 기대하고 있다.

2.2.2.3 기도를 통한 봉사의 삶

신앙고백서들은 공통적으로 위정자들에 대한 기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벨직신앙고백에서는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위정자를 인도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목회자가 전적으로 경건과 정직함속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단지 세속에 속한 존재도 아니요 영계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두 나라에 속한 자로서 두 가지 영역에 대한 공동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루츠 폴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도 의무를 모든 다른 권면들을 포괄하고 철저화하는 그리스도교적 자세의 중심점, 곧 국가를 위한 교회의 “공헌”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행동지침이 생긴다고 보았다.¹⁰³⁾ 즉 이 기도의 성격을 세상적 질서를 위한 기도로서 교회가 제사장적 기능을 통한 “국가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참여로서” 정치적으로 활발히 드러야 할 의무¹⁰⁴⁾라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고 전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을 다 함으로써 국가가 국가 되도록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거기에서 교회는 정치적인 것을 “보장”한다¹⁰⁵⁾고 주장한다.

칼 바르트 역시 교회의 기도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그는 디모테전서 2장1절 이하를 인용하여 “교회는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를 위해서도 힘에 의한 수단을 피하면서 기도해야 하며, 국가

103) 루츠 폴, **그리스도인과 국가: 로마서13장 연구**, 손규태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103.

104) Ibid., 207.

105) Ibid., 208.

의 폭력에 교회가 반대해야 하지만,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야 함을 주장하였다.¹⁰⁶⁾

그러므로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국민의 복종의 영역은 국민의 의무가 물질적인 방향, 정신적인 방향, 인격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전신(全身)으로 참여하는 충성을 요구하는 것¹⁰⁷⁾이라 할 수 있다.

2.2.3 반국가적(反國家的) 집단에 대한 교회의 이해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는 당시 지배적 위치에 있던 가톨릭교회의 전제주의적 국가관과 종교적 분파주의 세력으로 인식되던 재세례파의 무정부주의적 국가관을 거부하거나 정죄하였다. 이와 같은 태도는 분명 개혁교회의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이들과는 차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2.2.3.1 가톨릭교회의 전제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거부

개혁교회는 가톨릭교회와 세속국가라는 삼각관계 속에서 발전되었고 신앙진리들을 정립하여 왔다. 종교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혁교회는 은근히 가톨릭교회를 적대시하고 적그리스도로 규정하여 정죄하였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가톨릭교회에 대해 국가권력이 직,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여 개혁교회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신앙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벨직신앙고백은 “위정자의 직무는 시정부의 복지를 돌보는 것 뿐 만 아니라 성스러운 사역을 보호하는 것이다. 모든 우상숭배와 거짓 예배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파괴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위정자들이 통치권을 행사

106) 김기남,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37.

107) 존 칼빈, 로마서빌립보서, 존 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409.

하는 때에 교황이 그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의 백성에 대하여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만일 교황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또는 기타의 구실로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가톨릭교회에 대한 배타적 자세이며 가톨릭교회의 국가관의 주장을 거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혁교회는 위정자들이 가톨릭교회로 하여금 개혁교회의 신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교황의 영향이 더 이상 국가와 교회에 미치기를 원치 않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가톨릭교회의 국가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3.1.1 가톨릭교회의 국가관과 교권의 우월성

중세시대의 가톨릭교회의 국가관은 암브로스워 어거스틴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중세교회는 이들의 신학에 근거하여 교회를 정치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여 국가를 지배하는 교황주의의 정치 형태를 실현시켰다.¹⁰⁸⁾

어거스틴은 지상의 나라가 의를 상실할 때 도적의 떼가 되지만 신의 도성을 모방할 때 신의 도성과 가까워 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교회는 세상과 국가를 새롭게 하고 변혁시킬 사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타협이나 복종이나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라 비판과 감화를 통한 갱신과 변혁이라고 규정했다. 갱신과 변혁이 제한적이고 잠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사명을 꾸준히 수행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¹⁰⁹⁾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국가관은 절대적인 교권우월론을 기초로 한다. A. A 하지에 의하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교황 측의 교리는 국가는 그 모든 성원으로 말미암아 보편교회의 일부이므로, 정부라는 조직체는 교회 내에 포함되며, 국가

108) 김성호, **교회와 국가** (서울: 엠마오, 1991), 86.

109) Ibid., 87.

의 목적들은 교회의 위대한 한 목적에 예속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는 그 위임 받은 권위를 행사함에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황이 자기의 권위를 옹호해야 할 처지가 되면, 그는 국가들을 파문에 처하며, 그 국민들의 순종의무를 면제하며, 그 나라의 관리들이 이단(異端)이라느니 또는 순종하지 않느니 해서 왕들을 폐위했다고¹¹⁰⁾한다.

이런 가톨릭교회의 교권우월성은 자연법에 근거한 보니파키우스 8세의 신권적 입장에 잘 나타난다. 보니파키우스 8세에 의하면 영적인 칼과 육적인 칼이 있는데, 둘은 교황권과 군왕권을 대표하는 것으로써 둘 다 교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칼은 교회에 의하여 사용되고 세속적인 칼은 교회를 대신해서 사용된다고 본다.¹¹¹⁾

이런 절대적인 교황권은 인노센트3세 때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는 모든 교황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하였던 자로, 자신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교회와 세계의 최고 지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럽의 모든 황제를 지배하였다.¹¹²⁾ 가톨릭교회의 국가관은 그들의 우주관과 세계관이 그들의 국가관 형성에 전제 조건을 제공해 준다. 이들에 의하면 우주와 세계는 절대자이신 야훼 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신은 그의 전권을 지상에 그리스도의 바위 위에 세워진 교회에 위탁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상의 모든 지배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존재는 직접적으로는 지상의 가이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지상 국가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회는 실제적 국가요 세속적 국가는 교회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는 세속적 문제

110) A. A.하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해설, 김종흡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392.

111) 김성호, **교회와 국가** (서울: 엠마오, 1991), 69.

112) 김충립,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서울: 성광문화사, 2000), 36.

에 대해서는 간접적 권위만 가지고 있다.”, “세상에 있어서의 통일된 권위는 전체적으로 교회에 의해서 대표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가톨릭교회는 실제적으로는 교회권을 국가에 강요하지 않고 있으나, 이론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는 통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¹³⁾

그래서 루터는 중세교회의 전제주의적 신정정치(神政政治)를 ‘악마의 도구’라고 혹평했다. 그 이유는 중세교회의 전제주의적 신정정치가 그 자체가 교회를 부패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교권이 세상권력을 지배한 그것 자체가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¹¹⁴⁾

이렇듯 중세 가톨릭교회는 국가를 교회를 떠난 독자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교회가 통치한다는 신념에서 국가는 전적으로 교회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관이 형성되기까지는 양자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으나 중세에 이르러 확고부동한 교리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국가관은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¹¹⁵⁾

2.2.3.1.2 가톨릭교회의 저항권 이해

중세 신학의 완성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중세의 정치 형태인 신정정치의 원리를 수립했다. 아퀴나스는 국가를 자연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 국민이 궁극적으로 복종하여야 할 통치 형태는 국가적 통치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영적 통치 형태인 중세의 교회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그는 국가의 절대적 권위를 부인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기관인 교회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여야 하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소란과 반항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곧 교회만이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며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113) 김성호, **교회와 국가** (서울: 엠마오, 1991), 31.

114) 이장식, “기독교와 국가의 관계,” **교회와 국가** (서울: 문학예술회사, 1986), 142.

115) 김성호, **교회와 국가** (서울: 엠마오, 1991), 29.

이상적인 국가는 왕권이 제한되고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운영되는 정치형태를 가진 국가인데, 만약 국가가 통치자 한 사람이나 통치자들 소수의 개인적 유익만을 채우는 독재의 형태로 운영될 때는 그와 같은 정부 형태에 대해 국민은 반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¹⁶⁾

이에 반하여 교황청 안의 중앙집권적 정치적 권한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중세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자처하는 교황과 로마교회에 절대복종하여야만 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복종해야 할 통치 형태는 황제 통치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영적 통치 형태인 중세 교회통치라고 주장하고, 국가의 절대적 권위인 황제 제도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담 없이 교회에 반하는 국가의 통치행위나 정책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하게 되었다.¹¹⁷⁾ 또한 아퀴나스는 백성이 통치자에 불복종할 경우는 통치자가 자기보다 높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릴 때라고 지적한다.¹¹⁸⁾

이와 같은 신학적 전통과 근거 위에서 중세교회는 신앙에 관한 문제 뿐 만 아니라 정치에 관한 문제까지도 모두 다스리는 교황의 전제주의적 신정정치의 통치형태를 실현시켰다.

2.2.3.2 재세례파(Anabaptist)의 무정부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정죄

독일의 역사가요 종교 사회학자였던 에른스트 트뢰츨링은 16세기에는 대개 세 종류의 종교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았다.¹¹⁹⁾ 이른바 종교개혁의 지류 혹은 좌파로 불리는 집단들로서 재세례파, 신비주의적 집단, 반(反)삼위일체론자들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가톨릭교회와 급속하게 교리적으로 경직화된 종교개혁 본류의 교회들과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¹²⁰⁾

116) Ibid., 88.

117) 김충립,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서울: 성광문화사, 2000), 35.

118) 김성호, **교회와 국가** (서울: 엠마오, 1991), 89.

119) 루이스 W. 스피츠,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168.

120) 손규태, **개신교 윤리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76.

특히 재세례파는 기존의 가톨릭교회의 국가관이나 개혁자들의 국가관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기독교층은 재세례파를 반역단체로 이해하였다. 그로 인해 이들에 대한 평가는 국가나 개혁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재세례파를 이단이라 규정하고 단호한 정죄를 선언하고 있다.

벨직신앙고백서는 “우리는 재세례파의 과오와 그 밖의 선동적인 사람들과 또 일반적으로 높은 권세와 위정자들을 배격하며 정의를 파괴하며 물질사회를 유도하며 하나님을 사람들을 위하여 제정하신 고상하고 선한 질서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을 혐오한다.”고 정죄했다.

그리고 제2스위스 신앙고백은 “우리는 재세례파를 정죄한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공직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위정자에 의해 정당하게 사형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위정자가 행하는 전쟁과 위정자에 의해 수행되는 맹세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그들을 정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이단자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비방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쉬지 않는 자들을 제압하라”고 함으로써 당시의 이단세력들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거스틴은 국가도 종교문제에 대해서 이단을 처벌한다거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가 하는 일을 선의로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강제 정책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를 대행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가는 무력과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고 정당하다고 보았다.¹²¹⁾

베자는 “이단처벌에 관한 공직자의 권위”에서 저항권보다, 공직자의 의무와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직자에게 이단을 처벌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¹²²⁾

121) 이장식, *기독교와 국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102.

122) 배준완, “16세기 칼뱅주의의 저항권”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대학원, 1998), 20.

2.2.3.2.1 재세례파의 국가의 기원과 정교분리의 원칙

재세례파는 국가의 기원을 “인간의 악”에서 찾고 있다. 국가는 죄악 때문에 성립되었으며,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곧 중세사회의 구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루터와 쾰링은 이러한 과격한 주장에 동조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재세례파들은 진정한 신자라면 국가와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뿐 아니라, 국가와는 일체 아무런 관련도 맺을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세상은 역시 이 세상으로서 기독교화 되어 구제받을 수 있는 소망이 전무하다고 간주했다.

이리하여 세속정부가 이들을 탄압, 박해하고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유린할 때 이들은 보다 높은 소명(Higher Calling)에 순종하기 위해 세속정부에 불순종하기에 이르렀다.¹²³⁾ 이로 인해 이들은 정부를 전혀 무시할 뿐 아니라 사회내의 모든 계급 제도를 악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들은 그리스도 및 성도들에 의한 완전 신정정치가 구현될 때 강제력을 수반하는 모든 세속 정부들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믿었다.

브루너(E. Brunner, 1889-1966) 역시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 그는 국가의 기능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는 국가의 죄성을 강조하여 모든 국가는 큰 규모로 인간의 범죄를 표시하며, 역사상 모든 국가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가장 포악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그 역사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보았다.¹²⁴⁾

그리고 브루너는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갈등구조로 보았다. 즉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먼저 신의 나라에 속해 있으므로 현실 국가와는 일종의 알력과 마찰과 다툼의 입장에 서게 된다고 한다.¹²⁵⁾ 이로 인하여 재세례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제도와 제도적 삶의 구속력이란 근본적으로 그리스

123) 로렌드 H. 베이튼, **16세기의 종교개혁**, 서영일 역 (서울: 도서출판은성, 1992), 120.

124) 유창기, “교회와 국가관계의 사적고찰과 한국적 상황”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 1983), 41.

125) Ibid., 42

도의 법에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 현실을 이해하는 시도에는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박충구는 재세레파의 사상을 권력과 지배구조가 필요한 사회 현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지만, 기독교적 삶의 범주는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신념이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제도와 강제력을 행사하는 삶은 기독교인의 소명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중요한 행동원리는 비참여(Non-participation)의 원리로 표현된다.¹²⁶⁾

재세레파 교도들은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2원론을 주장하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이들의 극단적인 분리원칙의 근거는 두 개의 조직체는 서로 다른 세상에 속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국가는 옛 체제 즉 이 세상 왕국에 속해 있지만, 교회는 새로운 체제 즉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여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는 긴장의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가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하므로 교회와 국가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그들의 국가관이다.

그리고 국가는 지역공동체의 모든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데 반해 교회는 오직 성도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들은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간주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교회를 하나의 외국(Foreign Nation)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이 나라에 자신들을 가두어 놓았다.¹²⁷⁾

그래서 이상규 교수는 재세레파의 국가관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가관 이 세상 나라에 속했다 하여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분리주의적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이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려는 것은 소위 그리스도의 나라와 이 세상나라를 구분하는 두 왕국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서 교회와 국가를 절대적 대립의 관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재세레파의 교회관과 국가관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¹²⁸⁾

126) 박충구, *기독교윤리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48.

127) 김용국, "재세레파교도들의 교회론," *일립논단* 제7권, (2001): 41.

128) 이상규, "칼빈과 급진주의적 재세레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논문집* 제14집,

이와 같은 사실은 재세례파의 신조인 슬라이트하임 고백(1527)에 잘 드러난다.

모든 존재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선한 자와 악한 자, 신자와 불신자, 어둠에 거하는 자와 빛에 거하는 자,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자,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자와 우상에 속한 자로 구분되어 존재하는데, 아무도 한 부분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부분에 속할 수는 없다¹²⁹⁾

2.2.3.2.2 재세례파의 저항권이해와 반(反)사회적 요소

재세례파의 신조인 슬라이트하임 신앙고백에서는 국가의 통치수단을 인정은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밖에서는 검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검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며 죽인다. 또한 선한 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유럽에서 검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사형에 처하는데 사용하도록 정해졌듯이 이는 세상 군주들이 사용하도록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군주에 대한 저항을 위한 무기사용은 불허하고 있다.

이상규에 의하면 재세례파는 무저항적이고 평화주의적인 삶을 지향하였다고 본다. 이들의 저항관은 로마의 탄압과 박해 하에서의 초대 교회 성도들과 같은 무저항주의와 비폭력적 입장에서 있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이상규 교수는 이들이 평화주의와 반전(反戰)사상의 근대적 선구자들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였다.¹³⁰⁾

그리고 재세례파는 반(反)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특히 재세례파가 국가와 갈등했던 대표적인 논쟁거리는 맹세하는 것, 칼(무력)을 사용하는 것, 관직을

(1986): 101.

129) Schleithem Confession in George, 25.

130) 이상규, “칼빈과 급진주의적 재세례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논문집 제14집, (1986): 102.

갖는 것, 그리고 전쟁 세를 내는 것 등의 4가지 분야였다. 재세례파 교도들은 이 4가지의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이며 그들의 교회론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들 4가지 일들은 분명 성경적으로 세속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였다.

양낙홍 교수는 이들이 정부 뿐 만 아니라 정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했다고 한다. 즉 이들은 법률, 재판, 경찰, 교도소, 벌금형 등의 제도를 거부했고 군 복무와 참전도 거부했다고 한다.¹³¹⁾

신원하에 의하면 교부 터툴리안과 오리겐 등이 “원수사랑”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기독교인은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쳤고, 실제로 군에 복무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¹³²⁾ 베이튼은 이런 사상에 기초하여 재세례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교회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다. 즉 재세례파는 교회 밖의 모든 사회는 항상 사탄과 육체의 동반자이나 반면 교회는 이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야 하며, 교회내의 교제와 생활을 통해 주 예수의 교훈과 죽음을 실제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이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완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전력을 다해 경주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진 것으로 보았다.¹³³⁾

뿐만 아니라 김용국은 재세례파의 경제, 사회관을 하나님의 왕국은 경제적인 부정의와 사회적 분열과 계급화의 바탕에서는 세워질 수 없고, 평등과 나눔의 토대 위에서 세워질 수 있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단지 재산이란 완전한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언제든지 공급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¹³⁴⁾

131) 양낙홍, **한국기독교의 사회 윤리적 책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8), 39.

132) 신원하, 179.

133) 로렌드 H. 베이튼, **16세기의 종교개혁**, 서영일 역 (서울: 도서출판은성, 1992), 116.

이처럼 재세례파 교회는 정교분리의 원리를 극단적일 정도로 준수하려고 했고,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결국 개혁가들로부터 분파주의자들이요 위험한 무정부주의 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¹³⁵⁾

134) 김용국, “재세례파교도들의 교회론,” **일립논단** 제7권, (2001), 42.

135) *Ibid.*, 41.

3. 국가권력과 통치자에 대한 국민의 저항관계

이상에서 기본적인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가는 국민에 대해 존엄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민은 국가에 대해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복종의무가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앙고백서는 국가권력과 통치자가 불의를 행하거나 폭군의 모습으로 변질될 경우에 대해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1 신앙고백서에 나타나는 소극적 저항권

기본적으로 국민은 위정자에 대한 의무를 필수적으로 잘 감당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순종의 예외를 언급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 순종할 것을 언급함으로써 불순종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벨직신앙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벨직신앙고백의 규정은 국민들의 불순종이나 저항의 조건에 대해 한가지의 경우에만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명령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복종의 기준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해 포괄적인 복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철저히 신앙 중심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복종여부의 기준은 어떤 권력자의 힘이 아니고 법에 의한 것도 아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 기준도 철저히 성경적인 것이었다. 이는 정치적인 사항과 신앙적인 사항을 구별하지 않고 두 영역 모두 신앙적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불복종하거나 저항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

씀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제2스위스신앙고백은 “모든 그의 정당하고 평등한 명령에 복종하시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저항이나 불복종의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이 표현은 국민의 의무로서의 복종을 요구하는 규정이지만 반대해석을 할 경우 “정당하지 않고 불평등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칼빈은 악한 권세자에 대한 반항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반항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책임으로 생각해야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루츠 폴은 국가가 자기의 경계선을 뛰어넘으면 교회는 거기에 저항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자기의 영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탈선을 지적하고 그것을 “반신적(反神的)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역할을 “국가가 결코 신적 질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원리적 비판을 하고 “과수꾼”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보았다.¹³⁶⁾

그러므로 세속 정부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권세가 무한정하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세속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는 신의 법칙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다. 국가 위정자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종”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 그러므로 불복종과 저항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하등기관으로서의 주어진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불복종과 저항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할 수 있다.

136) 루츠 폴, 그리스도인과 국가: 로마서13장 연구, 손규태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113.

3.1.1 저항의 조건으로서의 “하나님의 계명위반”

신앙고백서에서는 저항의 조건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날 때” 가능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에게 있어서 복종의 한계는 국가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주인이 될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차지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융겐(C. Jugen)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침해당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금지과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경우에 복종의 한계와 저항의 당위성을 인정하였다. 그는 칼빈의 사도행전 17장 7절과 다니엘서 6장 22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가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복종의 한계가 생긴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저항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경우 허용된다고 신앙고백서들은 표현하고 있다.

본회퍼에 의하면 국민들은 정부의 “합법적인 명령들”에 언제나 순종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국가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추구하며 우리는 어느 경우이든지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고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저항이 허용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즉 기독교인의 복종의 의무는 국가가 직접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에 반항하도록 강요하게 될 경우 복종의 의무는 상실된다고 한다.¹³⁷⁾

베자도 초기에는 공직자의 폭거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피신하여 생명을 부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들의 저항을 금했다.¹³⁸⁾ 그러나 후기에 와서 베자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명령을 하거나 백성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약성서의 언약사상을 근거하여 ‘하위공직자’나 ‘삼부회’가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직자가 하나님이 금하는 것

137) 디리히 본회퍼,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98.

138) 배준완, “16세기 칼뱅주의의 저항권”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8), 20.

을 명령할 경우, 우리의 유일한 의무는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를 거절해야 하고 만약 폭군이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의무는 폭군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한다.”고 하였다.¹³⁹⁾

칼빈 역시 불복종과 저항을 허용하고 있다. 그는 군주에게 국민이 복종하는 예외가 있으니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주(主)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봉헌을 금지 당할 때엔 조국에서 추방될지언정 군주에게 맹종할 수 없다고 한다.¹⁴⁰⁾

라인홀드 리버는 모든 세속권력은 하나님의 권위 밑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¹⁾

이와 같은 언급들은 국가권력과 위정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한계 내에서 무력과 정책을 펼 수 있고 그 위임은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전제를 기초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벨직신앙고백은 위정자의 통치원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그들의 손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세속권력의 통치권을 행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1.2 불법적 저항에 대한 정죄

신앙고백서는 저항의 가능성을 열어놓음과 동시에 잘못된 저항이나 위정자에 대한 비난에 대해 단호한 정죄를 선언하고 있다.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위정자에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는 자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들은 “위정자를 멸시하는 자, 반역자들, 일반복지에 반하는 적, 이단적 무리, 그리고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공개적으로나 암암리에 거절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2절 주석을 통해 신적 질서로서 검을 부여받은 세상 당국

139) Ibid., 21.

140)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 (서울: 성문, 1993), 1027.

141) 유장기, “교회와 국가관계의 사적고찰과 한국적 상황”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3), 41.

이 열광주의자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반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세상의 겉으로 악인을 벌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하였다.¹⁴²⁾ 이와 더불어 루터는 군주들이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길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정부의 권세가 하나님께로 기인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오직 순종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⁴³⁾

루터의 이러한 주장은 예수께서 친히 폭력을 사용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에 기초하였다. 그래서 루터는 군주에게 대항하는 것은 자신의 머리를 자르는 것이며 그 부스러기가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원리로 보았다.

칼 바르트 역시 반역이나 혁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즉 그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제정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만 변혁될 수 있으므로, 인간적인 혁명을 수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심판자인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

칼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항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바울의 권면을 그대로 수용하여 우리가 이 저주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로마서 13장 주석에서 권세자나 위정자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야기되는 이 저주는 ‘심판’을 통해 임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심판은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 즉 첫째의 의미는 위정자들에 의해서 부과되는 처벌과 권위에 저항하는 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둘째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모든 행위를 내포함으로 보았으며, 셋째로 어떠한 저항도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 해악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저항이나 정당하지 않은 저항은 신적인 진노의 대상임과 동시

142) 김기련, “마틴 루터의 세상당국과 공권력 이해,” *신학사상* 122집, 가을호 (2003), 236.

143) *Ibid.*, 244.

에 최소화 되어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신앙고백서는 국민의 저항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저항의 가능성이 최소화되어 있고 저항이나 불복정의 행위는 신적인 진노의 대상임을 강조함으로써 정당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3.2 종교개혁자들의 소극적 저항성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의 중심인물들과 그들의 신학적, 사상적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받아 형성된 교회이다. 따라서 신앙고백서에 나타나는 저항의 소극성은 종교개혁자들의 저항사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에 나타난 저항권에 관한 언급들은 당시 개혁자들의 보수적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칼빈과 루터가 통치자에게 불복종하며 항거운동을 전개한 것은 그 당시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며 백성과의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러나 칼빈과 루터는 불의한 정부를 항거한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정치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 노력은 하였으나 적극적인 문화변혁의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루터는 진리를 말하면서 고난을 수납하는 정도에서의 신앙 양심적 저항은 인정하였다. 이에 비하여 칼빈은 정치권력의 한계와 불의한 폭정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긴 하였다. 즉 칼빈은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낮은 관리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상급 관리에게 저항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칼빈의 저항의 성격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칼빈의 정치적 견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정정치, 하나님의 질서가 편만한 하나님의 도시를 이루려 하였던 칼빈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루터는 국가권력은 교회의 신앙 영역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국가가 신앙문제를 간섭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힌다면 그 국가는 하나님의 진로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불순종 내지 참고 견디는 정도로 말했다.

이형기는 이와 같은 루터의 보수적인 태도는 루터가 국가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매개되는 기관으로 보았고 폭군의 경우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하는 인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분석한다.¹⁴⁴⁾ 그리고 루터는 독일 농민들의 폭동에 대해서 폭동이야말로 종교개혁의 본래의 의도를 망각하는 행위로 치부하였다. 루터는 무엇보다도 각 사람이 자기의 죄악을 철저히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폭군과 교황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며, 오직 설교와 가르침으로 종교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⁴⁵⁾

이에 반하여 칼빈은 하급관리자가 상급관리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따라 저항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에 왕들의 독재적 고집을 제압하기 위하여 백성 중에서 공직자로 선출된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이들이 이들의 의무를 따라 왕들의 횡포와 방자함에 항거해야 된다는 데에 결코 반대하지 않겠다. 만약, 그들이 낮은 평민들을 착취하고 백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악한 왕들을 목과한다면 그들은 악한 불성실을 자행하는 것이다.¹⁴⁶⁾

그러나 여기서 칼빈은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을 뿐 적극적인 저항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¹⁴⁷⁾

이와 같은 사실은 양낙홍의 주장에서도 잘 파악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144)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사, 1988), 168.

145) Ibid., 167.

146) 존 칼빈, **한영기독교강요** (서울: 성문, 1993), 1025.

147) 김성호, **교회와 국가** (서울: 엠마오, 1991), 97.

정치권력에 대한 복종의 한계는 16세기까지만 해도 그 질문에 대한 지배적인 대답은 “그래도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서 13장에 근거하여 본문을 “왕권신수설”의 근거로 사용했다. 왕과 위정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통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만 책임을 질 뿐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군주들이 권력을 오용하여 폭군으로 변질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었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이 무슨 짓을 하던 폭정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뿐이었다.¹⁴⁸⁾고 설명하고 있다.

3.3 소극적 저항의 원인으로서는 정치적 영향

이상과 같은 국민의 저항에 대한 신앙고백서들의 소극적인 태도의 근본 이유들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치적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종교개혁시대의 신앙고백서나 대표적인 개혁자들의 국가관은 당시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미 16세기의 시작 즈음에는 당시의 서방유럽은 하나의 단일제국이 아니었다. 즉 한 사람의 제왕이 세속적인 칼을 흔들고 이와 더불어 로마는 종교적인 영적 칼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민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자기네들의 주권적인 국가를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는 황제와 교황의 권한에 맞서서 충돌을 빚곤 하였다.¹⁴⁹⁾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고백서들과 칼빈이나 루터 같은 개혁자들은 당시의 급박한 역학적 구조와 변혁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그들의 국가관들을 전개하였다.

148) 양낙홍, **한국기독교의 사회 윤리적 책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8), 45.

149)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사상사** 전3권, 이형기·차종순 옮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3:28.

개혁교회와 가톨릭교회 혹은 개혁교회 내에서도 교파별로 서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국가권력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교회의 형편이 달라졌다. 따라서 개혁교회와 가톨릭교회는 국가권력과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다.

김영재는 이런 대표적인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라고 말하고 있다. 즉 청교도신앙을 추종하는 자들과 감독교회를 선호하는 자들 간의 충돌과 갈등 속에서 장로교 사상을 가진 청교도들이 왕에게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개혁주의 신앙을 수용해 줄 것을 바라며 정치적 타협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¹⁵⁰⁾

이러한 교회의 정치성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세속통치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최초의 회의로 유명한 니케아 회의(주후325)에서 알 수 있다. 콘스탄틴 황제는 아리우스 논쟁의 두 당사자를 화해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황제 자신이 의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안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세속권세가 교회 정치 영역에 침범하는 선례를 세우게 되었다.

개혁 신앙의 조상들이 그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을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비록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뒤이어, 스코틀랜드의 언약주의자들이 세속 정부의 꾀박을 받아 순교의 피를 흘렸던 역사도 있다. 이들은 분명히 세속 권세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절대적인 영적 독립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한편으로는 가톨릭교회가 교회와 세속의 문제들에 있어서 전적인 우위성을 주장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호의적인 세속 통치자들은 투쟁하는 개혁주의 교회들을 여러 차례 보호해 주고 육성시켜 주었던 사실이 있었다.¹⁵¹⁾

개혁교회가 영향을 받은 이러한 정치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통치행위나 통치자의

150) 김영재, **교회와 신앙고백** (서울: 성광문화사, 1989), 158.

151) G. I. 윌리엄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해설**, 나용화 옮김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3), 395.

불의에 대해 신앙고백서들과 개혁자들은 소극적인 저항의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소극적 저항권에 영향을 미친 정치성들은 신앙고백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개혁자들의 정치적 보수성과 신앙고백서의 작성배경과 이단자들에 대해 교회가 정죄한 사실 등에서 잘 드러난다.

3.3.1 개혁자들의 보수적 정치성

개혁교회가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공인하는 과정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종교개혁의 중심인물로 인정받고 있는 루터와 칼빈의 영향은 지대하였다. 따라서 루터나 칼빈의 정치적인 성향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에 반영되었고 이들의 정치적 보수성도 저항권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3.3.1.1 루터 (Martin Luther, 1483~1546)

루터의 정치적 성향들은 그가 남긴 몇몇 글들 속에 나타나고 있다. 1520년에 쓴 “독일 귀족에게 주는 글”에서 루터는 상당히 낙관적인 국가관을 전개하였다. 즉 여기서 루터는 모든 독일 귀족들이 기독교인임을 전제하고 만인제사장설에 의한 기독교인의 상호평등권을 주장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세적 성, 속(聖, 俗)의 이중구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속국가에 대하여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 결과 독일 귀족국가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보름스국회의 사건 직후 바르트부르크에 유배된 상태에서 저술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진지한 권고: 소요와 난동을 막으라.”는 저술에서 루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것을 권면하였다.¹⁵²⁾

그리고 종교개혁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던 농민전쟁은 종교개혁 운동, 특히 루터

152)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사, 1988), 167.

와 맞물려서 루터의 사상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봉기한 농민들에 대하여 루터는 그의 보수적인 경향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1525년 초 남부 독일에서 일어난 농민봉기는 급격히 확산되어 동으로는 오스트리아, 북으로는 튀링겐과 작센까지 뻗어나갔다. 같은 해 3월 작성된 농민들의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의 12조항들”은 교회적, 사회적 개혁 요구들을 담고 있다. 농민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신적 권리”에 기초해서 주장했다.

그래서 루터는 1525년 4월 “슈바벤 농부들의 12개 조항에 관한 평화를 위한 권면”이란 글을 통하여 군주들과 농민들 사이에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살육이 계속되자 “살육적이고 약탈을 일삼는 농민들을 반대하여”라는 글을 통해서 군주들은 농부들을 진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다. 이것으로서 루터는 자신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노선을 달리하는 여타의 종교개혁 운동들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사회개혁 운동으로서의 발전을 차단했다.¹⁵³⁾

그리고 루터는 카알슈타트(Karlstadt)¹⁵⁴⁾가 너무 인간적인 행동에 의해서 개혁을 단행한다고 비난하고 진정한 폭동은 설교말씀에 의하여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카알슈타트와 같은 이의 행동은 국가의 힘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루터의 생각은 국가는 질서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기에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폭동이야말로 종교개혁의 본래의 의도를 망각하는 행위로 치부하였다. 루터는 무엇보다도 각 사람이 자기의 죄악을 철저히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폭군과 교황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며, 오직 설교와 가르침으로 종교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⁵⁵⁾

이와 같은 루터의 보수적인 성향은 보수적인 신학적 성향과 종교개혁의 정치적

153) 손규태, **개신교 윤리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0.

154) 본명이 안드레아스 보덴슈타인으로 루터시대에 성자상(聖者像)과 성자제단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교회 내부 장식을 파괴한 과격한 종교개혁의 주동인물.

155)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사, 1988), 167.

상황에서 오는 실제적 이유에서이다. 그의 보수성은 농노들의 폭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정죄에서 그 정점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근본이유는 그가 종교개혁을 성취함에 있어서 독일의 정치적인 세력들의 비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즉 종교적 권위자이고 거대한 세력이었던 가톨릭교회로부터 루터를 구해 준 것은 독일의 정치적 세력들이었다.

그래서 리차드 니버는 자신의 저서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루터에 대한 평가의 내용 중 바울과 루터 모두 다 문화적 보수파라는 특색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그들이 당시의 주요 문화적 제도들과 관련 중 다만 한 가지, 즉 종교적 제도와 관습에만 개혁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이외의 것들 가령 노예제도, 사회계급제도 등에 대해서는 국가와 경제생활의 존속과 함께 비교적 변함없이 그대로 되어가기를 원한 사항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루터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며 교회의 종교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과 윤리사상은 부르주아적 성향과 더불어 일종의 “양심종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¹⁵⁶⁾

3.3.1.2 칼빈 (John Calvin, 1509~1564)

갬블(R. C. Gamble)은 칼빈의 저항이론 역시 루터의 정치사상에 영향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그는 정치적 고려로부터 자신의 사상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고¹⁵⁷⁾ 평가한다. 그리고 용겐(C. Jugen)도 그의 논문에서 칼빈이 이전 개혁가들 즉 루터, 쾰링거, 멜란히톤, 부커 등의 정치사상관을 가진 사실로 보아 칼빈의 정치적 저항사상은 이들 개혁가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이는 칼빈 자신이 권력자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많은 기득권을 누리며 자기 자신도 통치자의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귀족정치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저항문

156) 손규태, **개신교 윤리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9.

157) Gamble, R. C., "The Christian and Tyrant : Beza and Knox on Political Resistance Theory."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984), 132.

제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칼빈이 일반 국민들에게 저항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지식이나 방법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데이비스는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지적은 칼빈 자신이 엘리트의식을 갖고 귀족정치의 주체자로서의 입장을 잘 반영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가 이상형으로 본 정치형태는 귀족정치와 민주정치를 절충한 형태로 본 것도 그런 경향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강요 서문에서 그는 이 기독교강요의 성격을 “기독교변증론”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신교의 신앙고백 내용을 프랑스 왕에게 설명하고 있다. 즉 시민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국민들은 법에 순응하며, 통치자에게 복종함으로써 서로 타협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유지시키려고 했다.

이런 사실은 개혁자들이 세속권력과 친밀해지면서 가톨릭교회는 대신하여 새로운 정통과의 지위를 굳히자 개혁의 이념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았던 재세례파의 등장 배경에서도 알 수 있다.

칼빈은 저항의 정당성을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 즉 신앙적인 측면에서 허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정치성을 볼 수 있다. 칼빈은 폭군에 대해서 제후들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거할 책임이 있음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시민혁명의 길을 아예 막아 놓았다.

그리고 당시 국가에게 미움을 받고 정죄 받았던 반삼위일체론자들의 주장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서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칼빈은 마이클 셀베투스(Michael Selvetus)의 견해를 바꾸어 보기 위해 토론을 하기도 하고 권면해 보기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 후 칼빈은 1544년에 “마이클 셀베투스(Michael Selvetus)의 과오에 대항한 정통 삼위일체 교리의 수호”(Defence of the Orthodox Trinity Against the Errors of Michael Selvetus)를 저술하여 그들

의 신학과 자신들의 신학의 차별화를 시도하였고, 국가에 대한 그들의 과오를 지적하였다.

3.3.2 신앙고백서작성의 정치성

신앙고백서들은 통치자나 통치행위가 신적 명령에 위배되거나 법의 울타리를 벗어날 때 국민에게 저항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저항의 가능성의 요소는 정치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다.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 나라들에서는 가톨릭교회의 박해로부터 신교를 보호해 줄 것을 국가에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개혁교회들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에 직, 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벨직신앙고백서 작성 배경 속에서 정치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이 신앙고백은 합법적인 것이라면 정부의 모든 명령에 묵묵히 복종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할 경우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차라리 등가죽이 벗겨지고, 혀가 잘리고, 입에 재갈이 물리며, 온 몸이 불속에 던져지는 쪽을 택했다.”고 할 정도의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스코틀랜드의 자유 투쟁에서와 같이 네덜란드의 자유 투쟁에서 정치와 교회가 서로 협력했다. 즉 이 신조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고 십 만 명 이상에 달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며, 또 앞으로 더욱 극심한 핍박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복종할 것을 표명하였다.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역시 정치적인 목적이 반영되었다. 이 신앙고백서의 작가인 불링거는 1564년에 많은 동역자들과 그의 부인과 세 자녀의 생명을 앗아간 흑사병으로 자신도 사경을 헤매다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가 위독할 때 자기가 쓴 신앙고백의 초고를 잘 손질하여 쥘리히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글을 써 놓았는데 팔츠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자기 영내의 개혁교회를 승인하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 문답서를 공포함으로써 평화조약을 위배했다고 루터파 제후들의 위협을

받게 되자, 불링거에게 요청하여(1565) 이단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또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자세한 개혁과 신앙해설서를 준비토록 불링거에게 부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불링거는 미리 써둔 이 신앙고백서의 원고를 선제후에게 보내어 1566년 아우구스부르크 회의 이전에 출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위스 여러 개혁교회의 통일된 신앙고백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약간의 수정 후 이를 스위스교회에 공동신앙고백서로 채택하여 1566년 라틴어와 독일어로 쥘리히에서 출판하게 되었다.¹⁵⁸⁾ 많은 내용들 중에 특히 마지막 30장에서 개혁교회들이 대부분 국가와 마찰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국가와 교회 상호간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권력”과 관련된 주제들은 가장 뒤로 미뤄진 이슈로 기록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정치적 상황 즉 개혁교회들이 대부분 국가와 마찰하고 있던 시대상황이 고려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제2스위스 신앙고백은 위정자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즉 “만약 위정자가 교회에 반대되는 자라면, 그는 교회를 크게 방해하고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 교회에 친구이며 구성원이라면 그는 가장 유용하며 뛰어난 구성원이다. 그리고 이런 위정자는 교회에 크게 이익이 되며 결국 도움이 되며 교회를 증진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스위스 개혁교회는 위정자들에게 교회를 중시여기고 더 현실적인 도움을 위정자들에게 받고자 기대하고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위정자들의 신앙여하에 따라 교회의 운명과 교회의 상황이 다르게 전개 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교회에 구성원이 되거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교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3단계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적극적인 위정자들의 도움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 표현들을 살펴보면 “크게 유

158) 김영재, **교회와 신앙고백** (서울: 성광문화사, 1989), 147.

익이 된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 다음 단계로 “아주 크게 교회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교회가 통치자에게 바라는 기대가 클 뿐 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에 통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역시 23장에서 통치자에 관해 서술하면서 교회가 세속권력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김영재에 의하면 제3항에서 위정자가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역설한 것은 칼빈 역시 피력한 견해인데, 본 신앙고백서의 작성자들이 이를 초안할 때 장로교가 영국의 국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현행법에 준하여 성문화했으므로 위정자가 교회를 상당한 정도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⁵⁹⁾ 그리고 장로교회를 국교로 만들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교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을 피한 것이라는 주장에서도 알 수 있다.¹⁶⁰⁾

이런 경향은 개혁교회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루터교회의 기본신조이고 독일의 종교개혁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필립 샤프는 이 신앙고백서의 작성자인 필립 멜란히톤¹⁶¹⁾이 1530년 4월부터 6월까지 이미 초안되어 있던 것을 국가의 지원 하에 작성했다고 한다.¹⁶²⁾

그리고 멜란히톤은 기본적으로는 개신교 영주들의 저항자체를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멜란히톤은 영주들이 제국 법에 기초하고 있을 때만 저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영주들의 권리 가운데서는 황제에게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보장하고 있는 것만이 승인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당한 저항은 합법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¹⁶³⁾

159) Ibid., 176.

160) Ibid., 218.

161)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멜란히톤은 루터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으며 친구 중 하나였다. 그는 당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히브리어 학자인 로이힐리의 조카로서 석사학위를 17세에 받고, 21세 때인 1518년에 비텐베르크에 회람어 교수로 부임하였다.

162) 필립 샤프, **신조학**, 박일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71.

163) 손규태, **개신교 윤리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43.

3.3.3 이단정죄의 정치성

또 하나의 개혁교회의 정치성은 이단의 정죄사실에서도 볼 수 있다. 종교개혁 당시 다양한 종파와 이단집단들이 출현하였는데 그 중에는 반(反)국가적 성향을 띤 이단들도 다수 있었다. 이런 집단들에 대해 개혁교회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이단정죄의 문제에 대해 루터는 신앙의 문제는 칼에 의해서 결단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이단자를 박해할 권한이 전혀 없다¹⁶⁴)고 했다. 그러므로 종교적 문제를 개혁교회들은 종교적으로 해결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자들이 반국가적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개혁교회는 국가와 함께 그들을 정죄한 것이다. 당시의 이단자들은 국가나 세속권력에 반하는 사상과 삶을 영위하고자 했다.

그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율법적 규율이나 교회의 제도적 통제를 철저히 거부하였다. 그리고 기존적인 질서, 특히 교회의 고착화된 교리 체계나 정치적 제도들의 통제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매우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가진다. 이들이 율법이나 제도들을 부인한 것은 새로운 신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세례파가 1535년에 윈스터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려 한 것이나 농민전쟁에 가담해서 사회혁명을 꾀한 것은 바로 현재를 부정하고 질서를 무시하며 미래를 지향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신비주의 운동 역시 현실 긍정적 운동이 아니었으며 반(反)삼위일체론자들의 운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의 사상은 사회비판적 이론에 근거한 급진적 혁명윤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기 재세례파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교회적 박해를 인내하며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박해가 그 정도를 뛰어넘자 국가권력을 악의 현현으로 보고 무

164)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사상사** 전3권, 이형기·차중순 옮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3:77.

력저항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국가로부터 부정한 세력이며 불순 집단으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

특히 재세례파의 경우는 더욱 큰 미움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사상은 철저한 교회와 국가의 분립으로서 당시 어떤 집단들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성경연구에 집중하였다. 이들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원래 교회는 진정한 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국가와 연계되기는커녕 오히려 박해받고, 내쫓기고, 천대받았던 “순교자들의 교회”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형식적인 황제의 회심이 국가를 곧 기독교화 시키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세상은 역시 세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며, 만약 세상이 교회에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오히려 교회가 원래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저버렸기 때문이라¹⁶⁵⁾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루이스 W. 스피츠는 한스 홀의 설교에서도 그들의 사상을 충분히 제공한다고 보았다. 한스 홀은 그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가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통해 날 선 검으로 각종 거짓 제사장들과 신지자들, 심지어 귀족들과 국왕들을 향해 휘두르도록 하리라는 것을 주장했다. 그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천년간 평화 속에서 통치하리라고 설교했다.¹⁶⁶⁾ 여기서 그는 최후의 심판의 대상에 귀족과 국왕들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리고 “뮌스터왕국(Kingdom of Munster)의 선포” 사건 속에서도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신적 나라건설이라는 극단적인 교회와 국가의 분리론을 실제로 실험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극단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말았다. 이런 점들은 개혁교회나 국가로부터 큰 박해와 정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교회가 반국가적 단체에 대해 국가편을 섬으로써 반

165) 로렌드 H. 베인튼, 115.

166) 루이스 W. 스피츠,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177.

대급부로 개혁교회의 입지를 정당화할 수 있었고, 개혁교회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종교개혁 당시 교회의 신앙고백이나 개혁자들의 기본적인 국가관은 국가권력의 직, 간접적인 정치적 고려하에 작성되고 전개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개혁교회나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의 정치적 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개혁교회는 세상을 이끌어야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혁교회는 기득권 세력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어쩔 수 없이 수행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가권력에 대해 소극적인 저항만을 언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국가권력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 저항의 정당성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해 국민들은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통치행위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는 국민의 저항이나 불순종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신앙고백서와 개혁자들이 보여준 저항이나 불순종의 태도는 소극적이며 정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심지어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위정자에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는 자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술한 신앙고백서에는 저항의 가능성은 열어 놓았으나 저항과 불순종의 가능성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법, 계명에 반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신앙고백서 역시 무조건적인 복종은 단지 다음의 전제하에서만 적용된다고 한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그대로 머물 때”만 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의 온전성이 보존되지 않는 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된 내용들은 소극적 불복종 내지는 직접적 저항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런 점은 개혁교회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성에서 한계가 아닐 수 없다.

4.1 교회의 적극적 저항의 정당성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3가지로 대별하여 볼 때 사회통합적인 기능과 사회 통제적 기능 그리고 사회 변형 혹은 사회 변동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¹⁶⁷⁾ 그런데 이

167) 이삼열 외, *한국사회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서울: 한울, 2000), 21.

기준으로 볼 때에 개혁자들의 사상과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사상은 사회 통합적 기능과 사회 통제적 기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보겠다.

즉 개혁교회는 현존하는 사회구조나 질서 자체를 정당화시키거나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을 일탈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그러나 참 교회는 사회 변형적 기능도 중요하게 여겨야한다. 베버(Weber)는 종교가 사회변형 혹은 변동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힘이 될 수 있고 사회 비판적 기능과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의, 정치적 부패와 타락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 질서에 도전하면서 사회변혁을 촉구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이 기능을 오늘날 예언적 기능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런 기능은 중요한 사회적 저항의 한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¹⁶⁸⁾ 이런 견해는 모리스가 말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인간문화의 영역이란 있을 수 없다.”¹⁶⁹⁾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중세 가톨릭교회의 국가관형성에 큰 역할을 했던 아퀴나스 역시 적극적인 저항의식을 인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상적인 국가는 왕권이 제한되고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운영되는 정치형태를 가진 국가인데, 만약 국가가 통치자 한 사람이나 통치자들 소수의 개인적 이익만을 채우는 독재의 형태로 운영될 때는 그와 같은 정부 형태에 대해 국민은 반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⁷⁰⁾

한편 헝가리 신앙고백서는 저항과 불복종을 구별하고 있다. 저항은 무장된 것으로 역동적인 것을 말하고 시민적 불복종은 수동적인 저항에 제한되는 것으로 보았다. 쾰링글리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도 저항의 권리와 임무의 제약을 시민적 불복종으로 단지 수동적인 저항으로 취급한다.¹⁷¹⁾

그러나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 정당성은 국가의 본분을 제대로 수

168) Ibid., 22.

169) 리처드 리버,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80.

170) 김성호, *교회와 국가* (서울: 엠마오, 1991), 88.

171) Jan Rohls, *Reformed Confession: Theology from Zurich to Barme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258.

행하지 못 할 때에도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은 국가나 권세를 제정하시면서 그들에게 고유한 목적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증진이다.

따라서 국가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의 충분한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을 요구한다면 국가는 자기의 위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국가에 준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 된다. 그때 국가와 국민들 사이에는 큰 장애가 발생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루츠 폴은 국가가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의 저항이 야기된다는 사실을 칼 바르트의 주장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 즉 칼 바르트는 국가의 의미와 과제는 모든 경건과 성실함 속에서 안정되고 조용한 삶을 위한 것인데 경건한 삶 즉 그리스도의 인의(認義) 가운데서의 삶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외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본래적 과제로 보았다.

그러나 그 정부가 의인을 벌하고 악인에게 상을 주며, 군국주의화 되고 호전적인 색채를 띄우는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파괴하고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권세에 저항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이다.¹⁷²⁾

그리고 사무엘 루더폴드는 전제정치에 대해서 첫째, 전제 정치는 사탄의 정치이기 때문에 이것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며 둘째, 지배자는 조건부로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만약 지배자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권력 위임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며 셋째, 국민은 부정한 독재자에게는 불복종하고 저항을 해야 할 도덕적 임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정한 지배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성서적이 아니라고¹⁷³⁾ 하면서 적극적인 저항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172) G. I. 윌리엄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해설**, 나용화 옮김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3), 387.

173) 김충립,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서울: 성광문화사, 2000), 165.

본회퍼 역시 국가권력이 공공연히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탁을 부인하고 그 요구권을 상실할 때 복종의 의무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다.¹⁷⁴⁾

김성호는 국민의 적극적인 저항의 당위성을 권력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제시하였다. 즉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왕권신수설(the divine right of kings)을 주장하는 자들이 흔히 말하는 세속적 통치자의 절대적,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는 “the power”로써 절대적, 무조건적 성격을 띠지만, 국가나 정부의 권세는 “a power”로써 제한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땅의 권세는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권세요, 그 자체에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파생적 권세요, 맡겨진 기능을 다 할 때에만 정당화 될 수 있는 조건적 권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세는 다만 그에게 부여된 한계 속에서만 그 기능을 다해야 한다.¹⁷⁵⁾

그리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국왕에 대한 폐위는 그 법이 신실하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법에 일치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경우 저항은 권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정부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권리일 뿐 아니라 폭군에게 저항하는 것이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¹⁷⁶⁾

4.2 적극적 저항의 목적과 방향

A. A.하지는 국가의 권력과 그 권력에 대한 한계점을 옳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인과 기독교의 계시뿐이라고 하였다.¹⁷⁷⁾ 이와 같은 표현은 교회의 적극적인 현실참여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면

174) 디리히 본회퍼,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98.

175) 김성호, *교회와 국가* (서울: 엠마오, 1991), 65.

176) Jan Rohls, *Reformed Confession: Theology from Zurich to Barme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258.

177) A. A.하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해설*, 김종흡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393.

서도 교회나 기독교인의 저항과 현실참여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루츠 폴은 교회의 저항의 목적과 방향은 국가권력이 기독교적인 정책, 기독교적인 법률 등을 제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그의 특정한 임무에 따라서 진정한 정치적 질서가 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최덕성은 바르멘신학선언과 장로교인언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최덕성은 주장하기를 현대교회사에서 바르멘 신학선언과 장로교인 언약은 서로 전혀 다른 정치적, 지리적 상황에서 만들어졌지만 두 가지 모두 민족주의 기독교에 대한 경고, 우상숭배에 대한 저항, 정치권력의 신앙 간섭에 대한 저항, 종교개혁전통에 대한 신념, 교회의 보편성과 교회조직에 대한 교회론적,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는 모범적인 신앙고백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⁷⁸⁾

본회퍼 역시 그의 저서 “Ethics”에서 소위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영역이 단순히 교회와 대립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윤리가 수행되는 삶의 장(場)으로 보았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성적인 것, 자연적인 것, 비기독교적인 것 까지 포함한 온 세상의 온 인류를 위해 말씀을 선포해야하고 이 현실성에 입각한 기독교인의 대(對)국가적 책임성을 설정해야한다.

5.3 적극적 저항의 예(例)

불의한 국가권력과 통치자들에 대한 교회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저항의 경우들을 성경과 근대교회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178) 최덕성, **장로교인 언약과 바르멘 신학선언** (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2000), 28.

4.3.1 성경에 나타난 저항

양낙홍은 적극적인 저항의 정신을 전통적으로 세속권력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으로 간주되는 로마서 13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로마서 13장의 본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사무엘서 등에서 사울과 다윗이 일찍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으나 실제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백성들이 그들을 왕으로 선택하고 추대한 후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경 본문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접’이 아니라 백성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즉 본래 하나님의 것이던 권세가 지상에 내려와서 머무르는 첫 번째 좌소(the first seat of the power)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라는 것이다.¹⁷⁹⁾ 그러므로 백성들에 의해 공인되지 않는 권력이란 진정한 신적 국가권력이라 보기 힘들고 공인되지 않는 국가권력의 통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저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 루더폴드도 적극적인 저항을 강조하였다. 그는 구약의 다윗왕의 예를 따라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저항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로 정당방위를 위하여 저항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피하는 것이고, 셋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폭력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도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항과 폭력을 쓰는 두 가지 형태의 저항을 할 수 있다고 했다.¹⁸⁰⁾

그리고 본회퍼는 세속통치자에 대한 직접적인 설교가 성경에 기록되어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바르지 못한 통치자에 대한 지도와 적극적인 대응의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4절 이하에서 벨릭스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정의, 순결, 미래의 심판에 대해 설교한 것과 25장 9절에서 베스도 앞에서 방종에 대한 국가의 법률에 관한

179) 양낙홍, **한국기독교의 사회 윤리적 책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8), 46.

180) 김충립,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서울: 성광문화사, 2000), 165.

예증을 든 것과 26장 1절에 아그립바왕 앞에서의 설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4절에서 헤롯 왕 앞에선 요한의 경우 등을 제시하였다.¹⁸¹⁾

김충립은 적극적인 교회의 저항을 믿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진 임무로 보면서 원칙적으로 악마를 대항하는 일(벧전 5:9, 약 4:7)로 보았다. 그러면서도 직선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대항해서는 안 되고(마5:39)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과 지혜로써 무난히 대적 자들을 항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눅21:15).

따라서 크리스천의 저항과 생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실천되고(약4:7), 악한 세상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내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성립된다고 보았다. 바울은 이와 같은 기독교인의 저항을 ‘수난’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서신서 안에서 자신의 수난이나 그리스도의 수난을 편지 수신인의 수난과 결부시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은 “폭군에 대한 저항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였고 기독교인은 왕의 선한 신하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선한 신하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런 언급들은 모두 기독교인의 저항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이라 할 수 있다.¹⁸²⁾

4.3.2 근대교회사에 나타난 저항

칼빈주의가 꽃을 피운 나라들에서는 폭군을 몰아내는 혁명적 사건들이 발생했다. 프란시스 셰퍼는 자신의 저서 “그리스도인의 선언”에서 칼빈주의가 가장 널리 보급된 나라들-미국, 영국, 스위스, 스코틀랜드, 프랑스, 화란, 덴마크-에서는 17-18세기에 예외 없이 폭군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이 일어났다¹⁸³⁾고 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16세기 중반 존 낙스의 지도 아래 최초의 성공적 칼빈주의 혁명이 일어나 가톨릭교회를 무너뜨리고 장로교를 국교로 수립했다. 존 낙스는 매

181) 디리히 본회퍼,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77.

182) 김충립,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서울: 성광문화사, 2000), 158.

183) 양낙홍, **한국기독교의 사회 윤리적 책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8), 47.

리 여왕 앞에서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으며 그녀의 미사와 예배 행위를 단호히 통박했다.¹⁸⁴⁾ 나스의 불의한 통치자를 공박하는데 있어서 칼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칼빈이 통치자에 대한 반항의 책임이 합법적으로 구성된 공직자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주장한 데 비해 나스는 그와 같은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실로 독재자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독재와 공모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즉 일반시민도 정부의 관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요구할 경우는 불복종함은 물론 저항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한다. 비록 악한 정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공무원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지배자나 왕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통제되고 제한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의 모든 생활과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¹⁸⁵⁾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사무엘 리더포드는 통치자의 권리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무제한적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제한적인 것이다¹⁸⁶⁾고 여기면서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의 법을 여기면서 성공회 예배의식을 스코틀랜드에 심으려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그에 대항한 전쟁은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¹⁸⁷⁾

화란은 오렌지 공 윌리엄의 지도 아래 당시 그들을 지배하던 가톨릭교회의 영향 하에 있던 스페인을 격퇴하고 독립했다. 17세기에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크롬웰의 지도 아래 유명한 청교도혁명을 일으켜 군주정을 종식시키고 공화정을 수립했다. 18세기에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억압적인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혁명

184) John Knox, *The Reformation in Scotland* (Edinburg: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2), 269-270.

185) 김충립,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서울: 성광문화사, 2000), 164.

186) 김성호, **교회와 국가** (서울: 엠마오, 1991), 102.

187) *Ibid.*, 103.

을 일으켜 새 나라를 건국했다.

캐나다의 기독교 철학자인 폴 마사은 적극적인 교회의 대국가적 책임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역사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은 결코 폭군들에게 만만한 백성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부의 통치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했다. 교회사 특히 칼빈주의 교회는 예외 없이 정치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고 그것을 재정의하는 역사였다.¹⁸⁸⁾

이상에서 교회의 대국가적 사명으로서 적극적인 저항과 정치참여의 정당성들을 다방면의 사실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교회는 분명한 적극적 현실참여의 책임이 주어졌으며 적극적 저항의 정당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8) 양낙홍, **한국기독교의 사회 윤리적 책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8), 48.

5. 결 론

이상에서 연구자는 종교개혁운동을 시대적 배경으로 작성된 초기 개혁교회신앙고백서에 나타나는 국가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살펴본 국가관에 대해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고자한다.

5.1 요약

먼저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요약하자면 첫째로, 국가와 교회의 관계설정은 국가가 신적 기원에 기초한 존엄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즉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원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인적, 영적 사명을 수여받음으로 존엄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는 신적 권위에 근거하여 국민에 대해 적극적인 통치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국가권력은 그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포괄적인 무력사용의 허락을 하나님께 받은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존엄성은 국가가 신으로부터 받은 사명 즉 인적 사명과 영적 사명이 국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오직 국가권력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에서 인정된다. 그리고 통치자의 신적 성격에서도 통치자들은 한 자연인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전쟁수행권 역시 국가권력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으로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결국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신적 존엄성을 갖게 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복종을 가능케 하는 관계형성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원칙적 복종의무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국민들은 국가통치에 대해 철저한 복종의무가 있는데 복종의 근거는 국가권

력에게 부여한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인간의 영혼 속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대한 두려움, 혹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 범으로서의 양심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한 정당한 전쟁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민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참전하여 자발적인 헌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당시 교황의 전제주의적 국가관을 표방하는 가톨릭교회를 거부하고 무정부주의적 국가관을 추구하는 재세례파를 정죄하면서 교회와 국가의 상호 우호적 병립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살펴본 신앙고백서에 나타나는 국가관은 독일의 신학자이며 역사가인 언스트 트뢰츨(Ernst Troeltsch)가 분석한 교회유형의 특징을 갖고 있다. 즉 교회가 그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협을 시도하며 지배계급 속에 침투되어 기존 사회질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그들의 전체적 발전을 위하여 그 사회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동조하며 변화 보다는 안정을 꾀하는 가운데 개혁교회의 입지를 강화시켰다는 사실을 신앙고백서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¹⁸⁹⁾

그리고 이상과 같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종교개혁 당시 공존하고 있던 다양한 국가관들 즉 전제주의적 가톨릭교회의 국가관, 루터의 국가관, 칼빈의 국가관, 재세례파적 국가관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전제하(大前提下)에 형성된 칼빈의 국가관을 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앙고백서가 갖고 있는 한계점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한계점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관련된 것으로 신앙고백서들은 소극적 저항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가권력의 불의나 통치자의 폭정에 대하여 국민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뿐이다. 신앙고백서의 소극적 저항성은 개혁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국가권력과 기독교자들로부터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함으로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고백서의 소극적인 저항의 경향은 종교가 가져야 하는 사회 변혁적 기능으로서 예언자적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나 근대

189) 김종기,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유형론적 분석(1),” 연세논단 제20권, (1983), 115.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의 주장 등에서 적극적 저항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었다.

5.2 결론

이상의 것들을 종합할 때에 초기 개혁교회 신앙고백은 비록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16세기에 들어서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정치적 현상이었던 중세의 봉건주의에서 근대시대의 중앙집권적 왕정 국가로 전환하는 분기점에서¹⁹⁰⁾ 중세의 전제주의적 국가관을 탈피하여 국가와 교회가 서로 분리된 듯 하면서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 하에 동일한 하나의 지향점을 추구하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개혁교회가 놓여있는 현실은 정치와 종교가 엄격하게 분리되고 상호관계가 법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개혁교회는 현실적이고 대의적(大義的)인 공동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기독교인들은 두 나라의 시민으로 양쪽 모두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런 시대적 필요 앞에 살펴본 초기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오늘의 기독교신자들에게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의 원칙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90)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사상사** 전3권, 이형기·차종순 옮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3:26.

참고문헌

- 강근환.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의.” 기독교사상. 10월호 (1990): 7-15.
- 강사문.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6집 (2002): 27-79.
- 김균진. “교회와 국가의 관계.” 연세교육과학 제42집. 제1호 (1993): 115-135.
- 김기남.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김기련. “마틴 루터의 세상당국과 공권력 이해.” 신학사상 122집. 9월호 (2003): 225-247.
- 김명혁. “어거스틴의 교회관과 국가관.” 신학지남 43집. 6월호 (1976): 30-40.
- 김성호. 교회와 국가. 서울: 엠마오, 1991.
- 김영재. 교회와 신앙고백. 서울: 성광문화사, 1989.
- 김영철. “기독교에서 본 법과 평화사상.” 아카데미論叢 11집. 제1호 (1983): 76-104.
- 김용국. “재세례파교도들의 교회론.” 일립논단 제7권. (2001): 29-45.
- 김중기.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유형론적 분석(1).” 연세논단 제20권. 제1호 (1983): 113-127.
- 김충립.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서울: 성광문화사, 2000.
- 김희수. “양심의 속성에 대한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제5집.

(2002): 153-177.

박충구. **기독교윤리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배준완. “16세기 칼뱅주의의 저항권.”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8.

손규태. **개신교 윤리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_____.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신복윤. “칼빈의 국가관.” **신학지남**. 제40호 (1973): 8-22.

신원하. “반전운동의 재점화를 보며 생각해보는 우리시대의 전쟁.” **마다 주님과**. 11·12월호 (2005): 179-182.

안상기. “Martin Luther’s theory of the two kingdom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church.”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0.

양낙홍. **한국기독교의 사회 윤리적 책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8.

유창기. “교회와 국가관계의 사적고찰과 한국적 상황.”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 1983.

이삼열 외. **한국사회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서울: 한울, 2000.

이상규. “칼빈과 급진주의적 재세례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논문집** 제14집, (1986): 69-122

이승학. “개혁교회신조에 나타난 존 칼빈의 예정론.”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1983.

이장식. “기독교와 국가의 관계.” **교회와 국가**. 서울: 문학예술사, 1986.

_____. **기독교사상사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 _____. **기독교와 국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4.
- 임택진. **신앙고백서해설**.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6.
- 조성광. “개혁교회신앙고백에 나타난 교회론.”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3.
- 주경로. **거룩한 전쟁**.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 최덕성. **장로교인 언약과 바르멘 신학선언**. 서울: 본문과 현장 사이, 2000.
- 티모디 조지. **개혁자들의 신학**. 이은선·고영민 공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5.
- 한정일. “전통적 국가관의 비교론적 고찰(상).” **행정대학원연구논집** 제8권. (1980): 65-73.
- 허순길. “개혁신앙고백교회로서의 개혁교회와 한국장로교회.” **신학지남**. 12월호 (2001): 19-30.
- 황성수. **교회와 국가**. 서울: 신망애사, 1972.
- Bainton, R. H. **16세기의 종교개혁**.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92.
- Beeke, Joel R. & S. B. Ferguson.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Michigan: Baker Bookhouse, 1999.
- Berkhof, Louis. **조직신학 하**. 권수경·이상원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 Bonhoeffer, Dietrich.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Calvin, John. **기독교강요**. 김문제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77.
- _____. **로마서빌립보서**. 존 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 _____. **한영기독교강요**. 서울: 성문, 1993.
- Clark, Gordon. H.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나용화 옮김.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2.
- Gamble, R. C. “The Christian and Tyrant : Beza and Knox on Political Resistance Theory.”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984): 119-142.
- Gonzalez, J. L. **기독교사상사 전3권**. 이형기·차종순 옮김.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 Hodge, A. A.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해설**. 김종흡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 Jungen, Christoph.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 김형익·이승미 공역. 서울: 실로암, 1989.
- Knox, John. *The Reformation in Scotland*. Edinburg: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2.
- Meeter, Henry. **칼빈주의**. 김진홍·박윤성 공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3.
- Moltmann, Jürgen. **본회피의 사회윤리**. 전경연 편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 Neve, J. L. **기독교교리사**. 서남동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 Niebuhr, H. Richard .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Pohle, Lutz. **그리스도인과 국가: 로마서13장 연구**. 손규태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 Rayburn, R. G. **예배학**. 김달생·강귀봉 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4.
- Rohls, Jan. *Reformed Confession: Theology from Zurich to Barme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 Schaff, Philip. **신조학**. 박일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Spitz, L. W.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 Stott, John R. W.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 White, J. F. **기독교예배학입문**. 정장복 옮김. 서울: 엠마오, 1992.
- Williamson, G. I.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해설**. 나용화 옮김.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3.

A study on views of the nation found in the Confession by the Early Reformed Church

Jung, Tae-Jin

Department of Theology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wang, Jae-Buh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nvestigate the view of a nation found in the Confession of the Early Reformed Churches, which is the origin of the tradition of Reformed Churche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s and their nations.

According to the Confess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its' people, since national authority is endowed by God, national authority is dignified and people have to obey national authority. The Confession states that in principle, the compulsory obedience of people to national authority is an important factor for building up fundamental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its' people. In other words, the Confession declares that national authority has its origin from God and the ruler's authority is a privilege entitled by God and so, all people have to perform their duty by complete obedience and dedication to the ruler. For this reason, the Confession admits only passive resistance to governing authority and to the injustice of the ruler. In particular, it is not found in the Confession that there has been active and direct disobedience or positive description about the conflict between the nation and its people or the crash between the nation and churches.

This view results from the conservative inclination and political consideration

which leading reformists had at that time. As the result, the nation had built cooperative relation to the Early Reformed Churches and this relation had resulted in passive and conservative inclination of the Early Reformed Churches to the injustice and the corruption of the nation later.

As the church does not simply defend vested interests and correspond to existing system but leads the time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and faithfully carries out its prophetic mission, the church can fulfill its duty for the nation and the society. The evidence on this role of the church can be found in theories of modern theologians for the bible and the history of the church.

Modern Korean Reformed Churches are placed on a strict sepa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hurch and on the mutually broken relationship between them. Under this situation, the Korean Reformed Churches should not overlook their realistic and corporate responsibilities for a great duty and Christians must take a responsibility as dual citizens of both nation and church.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the church found in the Confession of Early Reformed Churches provides important principle for modern Christians as dual citizens about their roles for the nation if they overcome passive resistance to injustices of national authority and the ruler in the past.

초기 개혁신교회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국가관 연구
- 벨직 신앙고백서,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

정 태 진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 학 과
(지도교수 황 재 범)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개혁신교회전통의 원류(原流)라고 할 수 있는 초기개혁신교회의 신앙고백서에 나타나는 국가관과 국가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초기 개혁신교회 신앙고백서에 나타나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형성은 국가권력의 기원이 신적(神的) 부여에서 출발함으로 그 권력은 존엄하다는 관점과 국민의 원칙적 복종의무의 설정이 기본적인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국가권력은 신적인 기원에서 출발하며 통치자들이 가지는 권력은 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한 특권으로서 모든 국민들은 철저한 복종과 헌신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권력의 통치나 통치자의 불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소극적인 저항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국민의 갈등 혹은 국가와 교회의 갈등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며 직접적인 불순종이나 적극적인 저항의 언급을 연구의 대상인 신앙고백서들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시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정치적 고려에 의한 반영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개혁신교회와 국가는 상호 협조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런 관계는 결국 개혁신교회로 하여금 국가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 소극적이며 보수적인 경향을 낳게 하였다.

교회는 단순한 기독교를 변호하고 기존질서에 부합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시대를 선도하고 예언자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교회는 대국가적,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현대 신학자들의 이론들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개혁교회의 현실은 정치와 종교가 엄격하게 분리되고 상호 관계가 단절된 상태 속에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개혁교회는 현실적이고 대의(大義)적인 공동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의 시민으로 양쪽 모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초기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불의한 국가권력과 통치자에 대한 저항권의 소극성의 한계를 극복한다면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오늘의 기독교신자들에게 분명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의 원칙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